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782호>
2001년 4월 3일(화)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반병률 편집장 박수용 인쇄인 홍윤주 신문사 961-4151, 962-7128 (F)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2 각 단과대학의 정기총회가 많습니다. 양 배움터 상경(경상)대는 '계열제 폐지'를 동시에 토의안건으로 상정됐네요. 한 학기 단과대학의 모습을 그려보는 일, 기사만 읽어서는 가능할까요?

3

사립학교법 개정의 물결. 드디어 국회에 입성! 민주당 설훈 의원을 만났습니다.

4 서구와의 호혜적 협력! 탈 서방적 외교정향의 강화! 핵 선제권 강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외교 정책을 분석합니다.

5

무분규·노사화합을 선언한 후지제록스사 노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6 외대주변 문화를 찾아 헤매던 중, 외대 앞 소박하지만 사람이 머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차, 우리술을 맛 볼 수 있는 그 곳, 우리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 곳으로 함께 출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차생활 문화도 덧붙여 알아두면 좋겠죠!

7

연극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우리 연극의 현주소를 찾아봅니다.

용인, 무기한 수업거부 돌입

서울, 등록금 인상분 2% 학생복지투자 등 약속 받아

지난 달 30일(금) 종묘에서는 2000여명의 서울지역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인상 저지, 국가교육재정 확충,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전면철폐'를 요구하는 '전국 대학생 총궐기'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등록금 인상 규탄 및 인상저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정치 발언을 시작으로 △등록금 인상철회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 △국가교육재정 6%확보 등 '전국 대학생 5대 요구안'이 담긴 '3·30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와 관련 전국학생 연대회의 준비위원장 이승주(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군은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등록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단결해 요구안을 관철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천투쟁으로는 거리행진과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정리집회는 홍익대학교에서 새내기 발언, 3·31 민중대회 결의 발언 등으로 마무리됐다.

용인 지난 2일(월) 열린 총학생회 해오름식 및 정기학생총회에서는 지난 달 27일(화)부터 30일(금) 오전까지 진행한 총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총투표 결과는 재적인원 6258명 중 3229명(51.3%)이 투표해 찬성 2330표(72.16%), 반대 712표(22.05%), 무효 191표(5.79%)로 성사돼 무기한 수업거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교육부에 학교감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서 용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황중환(인문·철학 94)군은 총학의 불성실함을 반성하며 사죄의 의미로 무릎을 꿇었으며, 이에 총학생회장 양경수(동유럽·폴란드어 95)군은 "힘들고 눈물나는 싸움이었다. 무기한 수업거부로 등록금, 교육환경, 학자 등이 모든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학과장들은 지난 달 28일(수) '총학생회의 총장실 및 행정사무실 폐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상호 합의를 파기한 행위로 규정하고, 총장실을 비롯해 폐쇄된 행정 사무실을 31일(토)까지 회복시킬 것을 밝히고 있다. 이어 29일(목)에는 전체직원 명의로 30일(금)까지 집기를 원상복구하는 것과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 등이 담긴 입장도 발표됐다.

현재 양측은 오는 4일(수)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총학은 이에 앞서 폐쇄된 행정부서를 원상복구한다.

서울 지난 29일(금) 총학생회장단은 총장실에서 총장과 면담을 통해 올해 등록금 인상분 2%를 복지부분에 투자할 것을 제안받았다. 이와 함께 총장은 다음 화기부터 등록금 3회 분할 납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학생측 대표는 '2001년 등록금 인상분 전액 환불'과 '2002년 등록금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학교측은 이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예산안이 확정된 점'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공방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신축되는 본관의 학생 시설을 확충하는 안은 중대형 강의실을 15개를 포함해 지하 1층을 학생 자치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풍물패 연습공간 마련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계열제에 대해서도 총장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원한다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휴학생, 복학생 도서대출 △1건물 밤 10시까지 개방 △도서, 멀티미디어 자료 확충 등을 약속했다.

총학생회장 이승주(사회·정치외교 97)군은 면담내용을 보고하는 중앙운영위원회 자리에서 "등록금 투쟁의 초반에는 미흡함이 있었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실천적 모습이 돋보였다"며 그동안의 등록금 투쟁을 평가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이제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29일(목) 늦은 6시 반까지 '등록금 인상 철회, 교육재정 6% 확보'를 묻는 총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율 미달로 동맹휴업은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총투표에 참가한 2198명(41.02%)들은 90.43%가 찬성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당함이 확인됐다. 분할납부연기투쟁에 동참한 학생은 18명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28일(수) 열린 비상학생총회는 재적인원의 1/10이 넘는 670여명이 참가해 성사됐다.

이수경 기자

교육의 공공성 위해 거리로 지난 달 30일(금) 종묘에서는 2000여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등록금 인상 저지, 국가교육재정 확충,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전면철폐'를 요구하는 '전국 대학생 총궐기'를 진행했다. 김대중 정부는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6%확보 공약을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올해 대학 등록금은 전국적으로 12%인상됐다. 사진부

31일(토) 전국민중대회, 과잉진압으로 부상자 속출

지난31일(토) 늦은 3시 종묘에서는 '경제침탈 평화위협 미국반대!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 정권 퇴진'을 기치로 내건 전국민중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합과 한총련을 비롯한 대학생 단체(전학협, 민노당, 연석회의 등), 청년단체 등 1만7천여명이 참가했다. 우리학교의 경우 서울에서 100여명, 용인에서 5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집회에서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은 "미국은 지난 3월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10조원에 달하는 무기구매를 강요했다. 10조원이면 당장 굶주리고 있는 20만명의 사람들에게 5년간 월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게다가 미국이 말하는 새로운 세계전략 NMD는 북한을 제 1주적으로 여기고 있는데도 김대중정권은 무기구매를 반대하지 못했다. 우리는 민족의 힘을 바탕으로 반미자주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연설에서 울산대 조홍준 교수(건강연대 정책위)가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굴복해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해 놓고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국고지원을 통해 노동자를 살리고 국민건강보호법을 개정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명동성당으로 행진하던 집회대오는 종각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하여 해산당했고 연세대에 재집결하였다. 집회대오가 광화문진출을 위해 경찰의 저지선을 통과하려 하자 경찰병력이 공격대열로 정비하고 무차별 폭력을 가해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연행자 수는 54명으로 △성동 경찰서 10명 △동대문 경찰서 11명 △종로 경찰서 33명 등이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신방과 4명 △일본어과 1명 등 5명이 연행되었다. 그 외에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국민통합이란 명분으로 서민들을 외면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행태"라며 "평화시위 도중 연행된 학우 5인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류지훈 기자 kickbutt@orgio.net

9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가 오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3일간 홍익대학교에서 열린다.

의장 선출과 사업방향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는 대의원대회의 의결권은 단과대 학생회장 이상에게만 있다. 특히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이용헌(신문방송 94)군과 부산대 총학생회장 최승환(재료공학부 97)군이 의장선거에서 접전을 벌일 예정이다. 한총련 의장 경선은 지난 97년 이후 4년만에 처음있는 일로 선거는 5일(금) 밤 홍익대 운동장에서 펼쳐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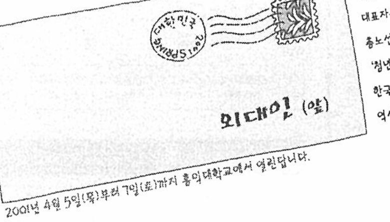
행사 첫날인 5일(금)에는 시민학생한마당, 해외청년학생결의대회에 이어 오후 7시부터 개막제가 시작된다. 이후 의장선출이 진행되고 다음날 6일(토) 오전 10시부터 대의원대회 본회의가 열린다. 7일(일) 행사 마지막날에는 기자회견과 대의원대회 성사보고대회, '미국의 NMD·TMD 저지와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가안)'가 열릴 예정이다. 그 외 준비된 부대행사로는 △학생회 강화 모범사례 발표 △과학생회와 농활 △새내기 한마당 △부문한마당 등이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홍익대 부총학생회장 노혜령양은 "한총련을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대학과 사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한총련이 되기 위한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대의원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의원대회를 합법적으로 치르기 위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회부

한·총·련 대의원 대회가 왔어요



2001년 4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홍익대학교에서 열린답니다.

"한총련을 믿어요"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우리 손으로 뽑은 각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 이상
대표자들이 모여 의장을 선출하고
총노선을 채택하는 한총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입니다.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한국대학과 조국의 미래를 책임 질 청사진이 제시되는
역사적인 자리에 백만학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대회

5일
- 시민학생한마당
- 해내외 청년학생 결의대회
- 개막제
- 의장선출

6일
- 본회의 (총노선 채택)
- 6·15반대 인사 단죄를 위한 청년학생투쟁위원회 결성식
- 과반학생회 마당, 새내기 마당
- 조국통일위원회 전진대회, 문화국 전진대회
-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한총련 4월 대회

7일
- 기자회견
- 성사 보고대회 및 출정식
- TMD-NMD 구축 저지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빈의자

자가당착

▲ 어느 날 초나라 장사꾼이 저잣거리에 방패와 창을 늘어놓고 팔고 있었다. "자, 여기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어찌나 견고한지 제아무리 날카로운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한 다음 이번에는 창을 집어 들고 외쳐댔다. "자,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은 어찌나 날카로운지 꿰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들 속에서 이런 질문이 튀어나왔다.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요?" 장사꾼은 대답을 못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 1996년까지 전대협 6년, 한총련 4년동안 단 한번도 전대협과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로 관정하는 일이 없었다. 느닷없이 1997년 검찰이 한총련 5기 집행부(의장 강위원)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기소한 이후 지금까지 한총련은 이적단체 취급을 받고 있다. 한총련은 과연 이적단체인가?

▲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명시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다. 다만 경찰·검찰이 "한총련은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뿐이다. 따라서 한총련이 이적단체인지를 관정하려면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에 대한 판단에 앞서 '국가보안법의 정당성·합법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원의 주류적 판결들은 우선 북한에 대해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한총련은 해마다 직접·비밀투표를 거쳐 구성되는 전국규모의 총학생회 연합체이고 공개 대중조직이다. 결국 전국의 대학생들은 매년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제 손으로 뽑고 있는 꼴이다.

▲ 곧 초나라때와 같은 우스운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때의 모습을 그려본다. "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입니다. 더욱 후하게 대접합시다"며 나랏님은 열심히 환영행사를 준비한다. 그러자 학생들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그럼, 한총련 학생이 환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랏님은 대답을 하지 못한다.

한총련 이적규정은 자가당착이다. 자신의 언행이 전후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문화부장 happyend21@hanmail.net

서 울

각 단과대 학생대표자대회 개최

상경대

오는 4일(수) 5시 상경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계열제 전환을 토의하고, 계열조직과 학회조직을 학칙으로 보장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집행부 사업계획 △예결산 심의 △총노선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집행국장 이영조(경제 94)군은 "학생들의 계열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러 해 전부터 커졌지만, 개선하지 못했다"며 "상학대회를 시작으로 움직임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양어대

동양어대 학생대표자대회(동학대회)는 3일(화) 5시 반 대학원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동학대회는 34대 동양어대 학생회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 △과 대표 연석회의 △매향리 소풍 △경산 미군 양민학살지 탐방 등의 사업계획을 함께 논의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강길수(베트남어 98)군은 "과 학생회와 단대 학생회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한 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학과 학생회장 박재성군 입후보

경영학과 학생회장 선거가 3일(화) 사회과학관 앞에서 이른 9시부터 늦은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재성(99)군은 작년 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학생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회, 소모임 활성화 △온라인 커뮤니케션을 통한 의견 수렴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군은 "학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00학번들의 의지를 보고 뒤늦게나마 후보로 나서게 됐다"며 "과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학생회가 쉽게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본관신축 기공식 학생, 반대 의지 피력해

본관신축 기공식이 지난 달 30일(금) 서울배움터 외국어연수원 앞 광장에서 50여명의 교·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조규철 총장은 본관신축에 대해 "제2 건학, 그 실천의 일환이다"며 "우리 대학을 내적으로 충실히 하는 사업이며, 동시에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또한, 변형윤 이사장은 "본관신축의 건축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구성원 모두가 자조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하며, 공사기간 동안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구성원 모두의 인내심 있는 자세'와 '건설담당자들이 안전사고 예방과 소음 축소'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00여명의 학생들은 본관신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며 미네르바 동산에서 식사를 했다. 또, 노천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등록금 인상 저지, 등록금3회 분할 납부'를 위한 3.30 총궐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동대회, 분과별로 교비기준안 마련키로 의결

전체동아리대표자대회(전동대회)가 지난 달 27일(화) 대학원 311호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동대회는 △집행부·학회장 소개 △동아리연합회 동연 사업계획 발표 △교비지급 변경안 논의 △복지요구안 △등록금 문제와 한국사회와 전망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지급방식에 의한 교비분배가 일률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 분과별로 교비 기준안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고학번 등의 이유로 동아리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연 위원회를 모집했다. 한편,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들의 활동을 추궁하기 위한 회칙개정안은 부결됐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오하나(동양·베트남어 98)양은 "회칙개정안이 부결돼 사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무역학과, 정총 개최

무역학과 정기총회가 지난 2일(월)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무역학과 학칙을 새로 인준했다. 그동안 상경대 학칙을 적용하면서 세부적 내용의 필요성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의 지원방향과 계열조직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도서관 2중창 공사 시작돼

관리과는 도서관 4, 5층 열람실에 2중창 설치공사를 오는 10일(화)까지 시행한다. 이번 공사는 지난 해 도서관소음 공청회에서 결정된 해결 방안이다. 오는 4일(수)까지 5층 열람실에서 공사가 진행되며, 10일(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에 학생들은 자료실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앙현관 회전문과 4, 5층 남·북 열람실 사이에 강화유리 가로막이 공사도 진행된다.

4·3 항쟁 추모행사 진행

제주향우회는 지난 2일(월)부터 오는 4일(수)까지 3일간 '끝나지 않은 역사 4·3 추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4·3 당시에 희생된 도민들을 추모하고 4·3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주 향우회는 이를 위해 붉은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사진전을 개최한다. 예년과 달리 이번 추모전 기간에는 2일(월) 늦은 5시 반 대학원 소강당에서 세미나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4·3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고, 주최측이 준비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토론한다.

이번 추모전 기획자 고승우(법·법학 94)군은 "4·3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 정치인들의 망언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4·3당시 제주도민의 정서와 정세를 읽어내 4·3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4일(수) 중국어과 정기총회 열어

중국어과는 오는 4일(수) 5시 대학원 210호 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사업계획 △집행부 소개 △운영위원회 권한, 의무와 관련한 의결안건 논의 △대우자동차, 등록금과 관련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논의될 의결안건은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제하기 위해 '3회 이상 운영회의 불참시 소모임 등에 재정적 규제를 하자'는 안이다.

또한, 중국어과는 정기총회에 앞서 노천극장에서 고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김민정(99)양은 "중국어과 인들이 많이 참여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사! 비상학생총회 동결! 등록금

등록금 인상저지, 3회 분할납부 쟁취, 2001 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서울배움터 비상학생총회가 지난 달 28일(수) 노천극장에서 재적인원의 1/10이 넘는 670여명이 참가해 성사됐다. 이번 행사는 문예공연, 각 단대장의 정치발언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3·30 공동연대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용 인

사학과 제주도로 답사 다녀와

사학과는 지난 달 28일(수)부터 31일(토)까지 4일간 제주도 일대 답사를 다녀왔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이번 답사에는 1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한라산, 민속마을, 박물관, 천지암, 송악산 등 여러 곳을 탐방했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이승준(99)군은 "이번 답사는 강의실 밖의 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유자헌(경정 95)군 경상대장 당선

지난 달 20(화)일부터 22일(목)까지 3일간 단선으로 치뤄진 경상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유자헌(경정 95)군이 총인원 549명 중 275명(50.1%)이 투표한 가운데 240명(87.27%)이 찬성해 당선됐다.

유군은 △학생회 강화 △계열제 폐지 △민주적 학사운영 쟁취 △학회 건설 및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유군은 "학생들 뿐 아니라 교수님들과도 논의해 경상대의 모든 일이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3일(화) 경상대 정기총회 개최

경상대 정기학생총회 및 해오름식이 3일(화) 늦은 5시 경상대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학생총회는 △방중 사업보고 △예결산(안) 보고 △2001학년도 사업보고 순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계열제 문제의 해결방안과 예결산(안) 책정시 공정한 예산 집행을 위한 학생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행사 후에는 고사, 캠프파이어 등 해오름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유자헌(경정 95)군은 "많은 학우들이 참여해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특히 1학년들이 많은 걸 배우는 자리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확대운영위원 기자회견 열어

지난 2일(월) 용인배움터 확대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등록금인상 반대, 학자요구안 실현' 등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측은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참여를 철저히 배제시켰다"며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현명히 대처하고, 학자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단대, 과 학생회장들과 언론사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서유럽대 정기학생총회 및 해오름식 열려

지난 달 27일(화) 6시 소운동장에서는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유럽대 정기학생총회 및 해오름식이 열렸다.

서대풍물패연합(서풍연)의 길놀이로 시작된 정기학생총회는 △방중 사업보고 △방중 결산보고 △식목일 행사, 대동제, 체전 등 2001년 사업계획 보고 △학자투쟁보고로 진행됐다.

정기학생총회 後 새내기준비위원단(새준단) 율동 공연, 각과 새내기 소원문 낭독, 고사 등 해오름식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정수현(서반아어 01)양은 "각 과별 술 담그기와 마지막으로 진행된 장작점화 및 강강술래가 재미있었다"며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생협, 29일(목) 대의원 총회 개최

생활협동조합(생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달 29일(목) 후복관 교직원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생협설립추진위원회' 신설 및 생협 법인 설립 추진, 학생위원회 활동 강화, 복지시설 개선 등 2001년 사업계획(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2001년 조합이사장으로 이상협(헝가리어)교수를 선임했다. 또한 △2000 회계년도 감사 보고서 승인 △2000 회계년도 사업 및 결산승인보고 △2000 회계년도 잉여금 및 결손금 처리 △2001년 조합임원 승인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 생협학생위원장 옥성원(자연·생명공학 96)군은 "학내 구성원의 편리한 대학생활을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졸업준비위원회, 취업간담회 진행

졸업준비위원회는 지난 2일(월)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과 취업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적성검사, 인터넷 자기소개서 작성시 필요한 사진 스캔작업 무료 실시 등 졸업준비위원회 사업설명과 취업설명회 등으로 진행됐으며,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졸업준비위원회 한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취업정보를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781호 2면 대학보도면에 실린 '우리학교 김진홍 교수..'라는 제목의 기사 중 '동아투위란 80년대 계엄에'를 '동아투위 70년대 계엄에'로, 용인배움터 인문대 해오름식 기사 중 '애문'(인문대 율동패)을 '애인'(인문대 율동패)으로, 자연대 해오름식 기사 중 '총 재적인원 972명 중 300여명이 참여해 성사되지는 못했지만'을 '… 성사되었다'로 바로잡습니다. 독자들의 양해바랍니다.

외대학보

이사람 "한 화가의 작품을 통해 재소 한인문제를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하늘색 고향'을 연출한 김소영(92년 불어과 졸업)감독을 만나

"요샌 인터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영화를 잘 만들긴 했나봐요"라며 호탕하고 밝게 웃는 김소영(불어과 92년 졸업)감독의 당당함에서 여장부의 느낌과 동시에 묘한 매력이 느껴진다.

김씨의 데뷔작 '하늘색 고향'은 이념에 의해 강제 이주 당한 40여만명에 달하는 재소 한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올해 서울 국제다큐멘터리영상제 대상, 부산국제영화제 최우수상을 거머쥔 작품이다.

7개월에 걸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현지 촬영과 국내 촬영, 1년여에 걸친 편집 작업 등 기획부터 음악, 편집까지 혼자 도맡아 총 4년여에 걸친 오랜 작업 끝에 영화는 완성되었다.

김씨 자신은 이 영화에 대해 '한 번 봤던 사람이 또 보는 영화'라고 평한다. "4년이란 긴 시간동안 혼자 안고 있어서 나만의 생각이 아닌지 걱정했어요"라며 "시사회에서의 반응은 예상 외로 뜨거웠어요"라는 김씨는 이제 자신의 영화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듯 하다.

그 당시 강제 이주 당한 한인화가 신순남씨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아 작품을 만들게 됐다는 김씨.

"작품을 형상화하는 방법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었어요"라며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까워요"라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화를 찍게 된 이유를 밝힌다.

평론학회에서 영화평론을 공부하던 김씨는 학회고문의 소개로 충무로에서 연출부 막내로 기록일을 하며 틈틈히 책을 보고 기본지식을 익혀 영화계에 발을 내 딛었다.

"영화가 전공도 아니고 외대의 특성상 영상계열에 선배가 없어서 외로움을 많이 겪었어요"라며 "다큐멘터리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땅에서, 그것도 첫 영화를, 여자가, 이유 없는 편견과 멸시의 눈초리도 수없이 받아야 했지요"라고 힘겨웠던 지난날을 돌아본다.

"힘들 때마다 함께 해 준 스탭들과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뜻있는 일임을 잊지 말라'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라며 그 동안 함께 고생해 온 동료들과 러시아 대사관에서 우연히 만난 외대동문 선배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도 잊지 않는다.

또한 김씨는 학창시절 방송국 아나운서, 풍물패, 학생회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며 "내 능력에 대한 경계선을 미리 긋지 말고 항상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도 덧붙인다.

김씨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벌써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가슴 속 깊이 와 닿았던 것은 단지 김씨에게서 풍겨지는 그 당당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수경 기자

주간일정표

	2일(월)	3일(화)	4일(수)	5일(목)	6일(금)	7일(토)
서울	제 2전공 신청/소속대학 교학과 (2일~6일)					
		동학대회 대학원 소극장/5시 반	서대 시네마테크 '줄앤짐' 6311/5시 반 (4일~5일)			
용인	제2전공 신청/소속대학 교학과 (2일~6일)					
		경상대 정총 및 해오름식 경상대 앞마당/5시				

서울배움터

요일 \ 구분	학생 아침	학생 점심A	학생 점심B	학생 점심C	학생 저녁	학생 면
월 (2일)	북어국밥 (₩1,500)	김치필라프 (₩1,200)	비프하이라이스 (₩1,400)	소고기국밥 (₩1,500)	오돈불고기덮밥 (₩1,500)	떡만두국 (₩1,200)
화 (3일)	두부된장찌개 (₩1,300)	참치회덮밥 (₩1,500)	카레돈까스덮밥 (₩1,600)	갈비탕 (₩1,300)	버섯김치찌개 (₩1,400)	스파게티 (₩1,200)
수 (4일)	콩나물국밥 (₩1,400)	소고기모듬야채덮밥 (₩1,500)	미네르바정식 (₩1,600)	대구매운탕 (₩1,400)	닭불고기덮밥 (₩1,500)	쫄면 (₩1,000)
목 (5일)	식목일					
금 (6일)	생선조림백반 (₩1,000)	소고기버섯덮밥 (₩1,400)	오징어숙회비빔밥 (₩1,300)	얼갈이곰탕 (₩1,500)	부대찌개 (₩1,500)	잔치국수 (₩1,000)

용인배움터

요일 \ 구분	어문관 중식 1	어문관 중식2	어문관 분식	후복관 볶음밥	후복관 덮밥/양식	후복관 탕
월 (2일)	소고기덮밥 (₩1,500)	동태매운탕 (₩1,800)	비빔쫄면 (₩1,200)	쇠고기야채볶음밥 (₩1,500)	순살돈가스 (₩2,000)	김치수제비탕 (₩1,800)
화 (3일)	오징어숙회비빔밥 (₩1,500)	설렁탕 (₩1,800)	김치국수 (₩1,200)	양송이볶음밥 (₩1,500)	폭스튜/요쿠르트 (₩2,000)	육개장 (₩1,800)
수 (4일)	김치제육덮밥 (₩1,500)	비빔밥 (₩1,800)	감자수제비 (₩1,200)	참치김치볶음밥 (₩1,500)	생선가스/피쉬버거 (₩2,000)	닭도리탕 (₩1,800)
목 (5일)	식목일					
금 (6일)	짜장덮밥 (₩1,500)	육개장 (₩1,800)	튀김우동 (₩1,200)	햄야채볶음밥 (₩1,500)	참치회덮밥 (₩1,800)	장국밥 (₩1,800)

사립학교법 재개정 움직임 - 새천년 민주당 설훈 의원을 만나

사립학교법의 결함은 곧 사학의 전횡으로 이어져

사립학교법 개정움직임이 집권 여당의 정책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필두에 서 있는 설훈 위원을 만나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과 방향을 들어봤다.

상문고, 덕성여대 등 비리재단의 복귀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변화는 가능할 것인지 본보의 인터뷰를 통해 가늠해 보자. 편집자

△현재 사립대학의 분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수업거부 등의 장기적인 분규사태로 이어지고 상문고와 덕성여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은지.

'상문고 사태'는 일단락 되었다고 보면 된다. 얼마전 고등법원에서는 상문고 재단이사의 학교 운영권을 박탈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임시 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1학년들의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받으면서 나가기도 했지만 기존에 있는 학급을 중심으로 교육이 가능하다. 원래 상문고는 학급 수가 많아 학급수의 조정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덕성여대는 이사장이 전횡으로 물의를 일으켜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재단에 비협조적인 교수들을 재임용에 탈락시키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덕성여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분규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규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현 사립학교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행 사립학교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재단의 부정비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단의 전횡에 대해서 현행 법적 테두리에서는 교육부가 어떤 제재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결국 사립학교법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은 곧 사학의 전횡과 비민주적 운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 가장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으로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과 방향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투명성과 민주성 대신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요소로 덮여진 것이 현재의 사립학교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백년지 대계인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개정은 마땅하다. 또한 이번 개정이 교육개혁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의 개정이 아닌 근본부터 제대로 고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본격적인 교육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번 개정안의 경우, 집권 여당(새천년 민주당)에서 먼저 추진했다.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했다. 또한 이 문제로 의원 총회 논의와 공청회를 갖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다.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 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야당에서 반대를 했지만 야당 또한 과거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현재의 여론이 개정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듯 하다. 일부에서는 사립학교법이 여론에 휩쓸려 몇 몇 조항만 바뀌는 겉보이기식 개정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서 개정안의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 사립학교법 분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에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얼마든지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분규를 거울삼아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한다.

텔레비전 시사프로에서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가 현재 진행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상문고 사태와 관련해 전 상문고 교장의 부인인 이우자씨 등이 낸 소송이 2심에서 기각됐다. 이같이 최근 보도들은 사립학교법개정이 멀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전국대학기자신문연합 공동기자단

알림

외대학보 홈페이지가 5일(목) 새로 선보입니다. 게시판 기능 강화,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가가겠습니다.

http//:maincc.hufs.ac.kr/~weekly

—외대학보—

사설

묻혀가는 교훈, 재단투쟁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 학내공론화 필요

학교구성원들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관신축의 첫 삽이 떠진 이 날은 3년전 비리재단을 척결하고, 제2건화를 선포했던 날이다. 수억원 대의 공금횡령과 편입학 비리를 저지르고도 학교주인 행세를 유지하려는 박승준 일가에 대항해 일어났던 외대인들의 투쟁은 미네르바의 메아리로도 남지 못하게됐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뼈아픈 경험이 현재의 교훈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문고 사태와 덕성여대 사태가 매일 뉴스와 신문지면을 달구고 있지만, 외대에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이 두 학교의 뉴스에 외대가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두 학교 모두가 비리재단의 복귀로 말썽을 일고 있기 때문이다. 덕성여대는 비리사실이 드러나 물러났던 박원국 이사장이 지난 1월 복귀한 후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 5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최근엔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실도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또한, 상문고는 전 상문고 교장의 부인인 이우자씨 등 상문고 이사진이 복귀하자마자, 지난 1994년 교감 시절 내신성적 조작과 횡령 방조로 처벌받은 바 있는 인사를 교장에 임명하는 등 교사들끼리의 반목을 부추겼다. 이러한 모습은 관선이사 임기가 올해 말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재단의 민주적 구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닥칠지도 모르는 외대의 미래상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외대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뉴스들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초점은 사학에 대한 국가감독기능의 강화이다. 사학재단은 전체 대학교육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이들의 10%에 해당하는 대학이 비리, 분규에 휩싸였다. 이들 분규의 온상은 재단이 학교의 주인행세를 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교육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단의 전횡을 막는 길은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일인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은 비리 재단의 복귀기간 제한을 늘리는 것과 재단운영과 학교운영을 분리하는 것이다.

먼저 비리재단의 복귀기간 제한은 현재 2년으로 돼있다.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이 개정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5호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복귀가 불가능하게 돼있으며, 선거법위반의 경우도 다음 선거 때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할 만큼 중요함에도 이를 훼손한 장본인이 2년만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재단운영과 학교운영을 분리하는 방안은 이사장의 임면 권한을 학교운영의 책임자에게 넘기는 것이 요지이다. 상문고와 덕성여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인사권을 지니고 있는 재단은 그 힘으로 교육을 흔들고 있다. 사회복지 기관처럼 공익법인의 경우에 설립자의 친인척관련자는 이사 정수의 1/5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훨씬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친인척 비율을 1/3까지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로 주어지는 인사권도 학내 구성원들이 동등히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의 흐름에 외대는 한 발자국도 떨어져 있지 못한 잠재적 분규대학임을 구성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취재낙수

역행하는 정보 공개

기자에게 정보는 생명이다. 하루하루 발생하는 정보를 의미있게 엮으면 그것이 바로 기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보를 확보하는 노하우는 기자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상황에서는 능력이 아주 신출해도 무용지물이다.

기자는 지난 달 22일(목) 외대홈페이지 '외대발전을 위한 제언'을 통해 공개됐던 우리학교 행정단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 이를 자세히 취재하기 위해 경리과와 예산과를 오가며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체적 자료를 얻기는 커녕 담당자의 궁색한 변명을 듣는 데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작년 상반기(2000.3.1~2000.8.31) 동안 총장 8천여만원, 건설본부장 1천7백여만원 등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그 총액이 2억원이 넘게 기록돼 있었다. 업무추진비가 말 그대로 업무 추진시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윤활유가 되는 곳에 쓰이는 것이어서, 구체적 쓰임이 투명할 것을 바라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액수가 학생 200명분의 한 학기 등록금 액수와 대등함을 고려할 때 기자는 그 쓰임에 충분히 물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8일(수) 경리과의 한 담당자는 "업무추진비는 공개할 수 없을 것이다"며 애매모호하게 책임을 떠넘기다 "학생처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절차를 문제삼았다. 이러한 태도에 기자는 협조전만을 남기고, 경리과의 논의 결과를 기다렸다. 다음날인 29일(목) 자료협조 결과를 묻는 통화에서 담당자는 "공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우리 부서에는 그런 자세한 기록은 없다"며 "예산과에 가면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기자가 답을 듣고 찾아간 예산과에서는 어떤 반응이었겠는가?

대답하기 어려운 항목에 말을 돌려가며 정보공개를 늦추는 자세 외에도 두 부처 담당자가 동일한 반응은 "내·외부감사를 통해 기자가 하려는 일은 잘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외부 감사제도는 법률적으로 세부준거기준이 없다.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감사에 국한하고 있어 시민단체 등을 통해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학교측이 정보공개를 꺼리는 경우는 업무추진비 같은 '곤란한' 정보들만이 아니다. 올해 예산안의 공개를 요구했을 경우에도 학교 고위관리자로부터 '곤란함'을 통보 받아야 했다. 더구나 지난 달로 사립대학의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돼 교내 신문은 물론 홈페이지, 도서관 등에 이들 자료를 비치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학교가 정보공개를 해야할 대상은 학내 구성원 모두일 것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대해 본다. 대학부

빈그릇만 주세요! *학생식당이 잔반처리로 골치를 앓고있다. 퇴식구 담당 주방 아주머니는 "무리하게 자율배식해 간 반찬들이 그대로 버려진다"며 먹을만큼만 덜어갈 것을 학생들에게 부탁했다.* 사진부

제2전공 이수신청서 제출

2001학년도 1학기 제2전공 이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제2전공 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에 '제2전공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청기간 : 2001. 4. 2 (월) ~ 4. 6 (금)
2. 신청장소 : 소속 대학 교학과
3. 신청자격
   제7학기(조기졸업 제6학기) 재학생으로, 제6학기 (조기졸업 제5학기) 까지 제2전공 1개 영역에서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3. 신청범위
   가. 캠퍼스 내에 설치된 학과(전공)에 한한다. (단, 법학 제외)
   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199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제로 졸업하는 학생은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 비사범계 학생은 사범대학 학과의 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 신청할 수 없다.
   라. 전과생 및 편입생은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4. 유의사항
   위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2전공 이수허가를 받지 못한 학생은 졸업시 제2전공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없다.

200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취소

200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취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수강신청 취소 기간 및 시간 : 2001. 4. 9(월) - 4.13(금), 매일 09:00 ~ 17:00
2. 수강신청 취소 방법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수강신청 취소
   (단, 재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해당대학 교학과에 재수강신청 취소를 하기바람.)
3. 제 한 : 취소하여 12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됨. (4학년 제외)

2001. 4. 3

교 무 처 장

알 림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효율적인 취업상담 및 취업추천을 위하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별 취업진로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 아 래 -

1. 대상자
   가. 기 졸업자중 미취업자
   나. 2001년 8월 졸업예정자
   다. 2002년 2월 졸업예정자
2. 카드제출기간 : 수시
3. 취업진로카드 교부 및 접수처 : 학생취업정보센터
   가. 서울캠퍼스 : 학생회관 1층 (전화 961-4436)
   나. 용인캠퍼스 : 학생회관 1층 (전화 031-330-4040)
4. 준비물 : 증명사진 (3㎝×4㎝) 1매

2001. 4. 3

학생취업정보센터 소 장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공모

본 대학교는 작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중소기업청 및 경기도의 설립 지원과 대학 대응 투자를 바탕으로 용인 캠퍼스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0평 규모의 독립 전용 건물로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여 금년 3월 21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본 창업보육센터는 15평형 보육실 10개와 이외에도 공동작업실, 회의실, 자료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자동 설계/가공 설비, 초고속 인터넷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경영, 특허법률, 행정 등 분야의 교내외 전문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입주업체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예비 창업자 및 우수 벤처기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보육실 규모: 전용면적 15평
2. 입주 기간: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 원칙, 최장 2년 이내
3. 입주 비용: 임대료, 관리비 포함 실당 월 45만원, 통신료 별도
4. 제공 집기: PC, 프린터, 사무집기, FAX, 전화기
5. 신청 서류: 입주 신청서(센터 양식), 대표자 이력서, 사업계획서 각 1부
6. 신청 기간: 2001. 4. 3 - 2001. 4. 17
7. 신청 접수 및 문의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Tel: 031) 330-4620, Fax: 031) 330-4650
   E-mail: hufsbi@san.hufs.ac.kr

2001. 4. 3

창업보육센터 소 장

공 고

발전캠페인본부에서는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 주민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지난 해 11월 지역상가주민 초청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학과 지역 상호발전에 뜻을 함께 한 지역상가들이 학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발전본부에서는 21세기외대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외대사랑후원업소를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외대사랑후원업소 명단(가나다순)

상 호	대 표	전화번호
금 강 산	신상균	968-0303
남 강 가 든	박향연	968-0759
비스마르크	이혜숙	965-0211
우 미 정	박봉석	963-0491
일 송	이창훈	968-7520
청 학	송대헌	965-7302
탑 호 프	김순자	964-8331

외대발전캠페인본부장

공개특강

우리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강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 음

1. 주 제: 금융개혁과 한국금융산업의 미래
2. 연 사: 윤병철(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3. 일 시: 2001. 4. 6(금), 15:00
4. 장 소: 국제관 애경홀

2001. 4. 3

국 제 지 역 대 학 원 장

학술단신

외대학술연합, 아도르노 미학 이론 세미나 열어

외대학술연합(외학연) 문화이론 세미나팀은 이번 2001년 1학기 내내 '아도르노 미학 이론 세미나'를 진행한다. '부정 변증법' '미학 이론' 등을 통해 헤겔에 대응하는 논리를 펼쳐 주목을 받았던 철학자 아도르노의 사상에 대해 연구해 보는 이 세미나에는 현재 대학원생 9명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윤선경(외학연 의장, 영어과 2학기)양은"아도르노 이론은 난해한 점이 많아 학부생에게는 약간 어렵겠지만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라고 전한다.

세미나는 매주 토요일 11시 대학원 건물 4층 외학연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대학원 총학생회, '글쓰기 방법과 실제' 강좌 열어

논문작성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강좌가 지난 29일(목)부터 오는 6월 7일(목)까지 열린다.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준비하는 이번 강좌는 지난 겨울방학 글쓰기 강좌에 이어 기획된 것으로 '자료찾기' '초안과 서론 쓰기' '논문 구조의 수정' 등 주제를 통해 글쓰기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학교 한국어교육과 허 용 교수가 강의하며 매주 목요일 5시 30분 대학원 311호에서 열린다.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힘

가라사니

기후변화협약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기선언은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인류와 지구를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월 30일자 한겨레신문 사설 중)

요즘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파기에 대한 세계 환경운동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92년 브라질의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처로 채택된 결정서다.

대기속에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등이 많아지면서 마치 온실처럼 지구를 덥힌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이들 온실가스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을 0.8~3.5도 높이고 해수면을 50cm 상승시켜, 기상이변과 질병만연, 생태계 파괴, 해안 인구밀집 지역 침수 등의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약은 우리 나라를 포함한 184개 국이 가입해 94년 발효됐으며,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97년 채택됐다.

21세기 러시아의 지전략과 동북아

미국의 NMD · TMD 개발저지 · 한반도 평화구축으로 안정화꾀하는 '실용주의노선'

시사저널

외교·안보 문건 속에 나타난 푸틴의 신 대외전략의 특징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서구와의 호혜적 협력 노선의 견지이다.

연방 출범 이후 러시아가 대외정책 영역에서 표방한 핵심주제는 국내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유리한 대외적 환경 창출이다. 러시아는 시급한 경제재건과 시장경제체제의 착근이라는 국내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해 있고 그런 점은 푸틴시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나토의 동진 팽창을 둘러싼 안보적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경제이익의 확보, 특히, 러시아 경제의 서구 경제체제로의 편입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방세계와 협력적 상호작용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객관적 현실에 처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탈 서방적 외교정향의 강화이다. 푸틴은 '신 대외정책개념'에서 CIS, 중동, 남아시아, 아시아태평양지역, 심지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이들 지역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적 협력의 중요성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강조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 외교의 탈서방적 정향은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해 다극적 세계의 독자적 중심부 세력들과의 전략적 연합을 모색했던 옐친의 전방위노선 단계에서도 강조되었다. 그러나 푸틴은 이를 보다 더 가일층 확대·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반미세력의 결집차원에서 한때 소원했던 과거 동맹국들과의 견고한 전략적 협력체제의 복원에 높은 외교적 비중을 두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양적 질적으로 저하된 통상 군사전력과 서방과의 상실된 힘의 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핵 선제권의 강화이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옐친주의 노선과 차별성을 지닌다. 하나는 대외정치적 과제 해결에 있어 한때 간과하였던 군사적 요소의 비중 증대, 즉 전통적 수단의 보강이고, 다른 하나는 재래식 전력 무기 대신 핵무기 의존도 강화 방향으로의 안보 전략 변경이다.

여기서 푸틴의 비장의 핵 카드 제시는 국제적 환경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인식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한다.

서구 의존적인 자유주의 시각에서 철저히 힘의 분배와 세력균형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시각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푸틴은 국가이익의 달성 수단으로서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에 남은 유일한 최후의 정치·군사적 수단인 핵무기를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그리고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한 전위대로 적극 활용코자 하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푸틴의 신대외전략은 옐친의 전방위 강대국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옐친주의 노선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취약성을 보완하는, 이를테면 핵전력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나토와의 군사적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안보이익을 공고히하고, 탈서방적 외교정향을 강화하여 미국의 단극적 패권질서의 저지와 함께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세계적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푸틴의 대외노선은 경제발전 우선 전략과 강대국지위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전체적인 대외전략 목표들의 유기적 균형과 접근방법의 탄력성을 중시하는 일종의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노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미국의 NMD 및 TMD 개발 저지

최근 러시아의 안보적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새로운 위협은 미국의 독자적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및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개발계획이다.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적극 추진중인 TMD와 관련하여 크레믈린 지도부는 이 프로그램의 행동권에 러시아 극동지역 상당 부분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고, 이를 나토의 세력권 확대와 함께 자국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의 NMD/TMD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자국에 대한 안보적 위협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러시아의 사활적인 안보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면 러시아의 유일한 군사적 견제수단인 핵전력, 특히 핵탄두 ICBM이 무용지물이 되어 미·러간 군사 전략적 균형이 파괴된다. 이는 1999년 유엔 안보리의 동의를 결여한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일방적 군사공습이 예증해 주듯 미국의 독단적 전횡과 무차별적인 힘의 행사를 자유롭게 하여 세계질서의 유일적 패자로서 미국의 거칠 것 없는 오만주의를 부추길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핵 억지 기능 상실은 전략적 고립을 심화시켜 줄 것이고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을 목표하는 푸틴의 세계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준다. 셋째, NMD · TMD 는 동북아 및 세계전역에 새로운 긴장과 군비경쟁을 유발시켜 러시아가 지향하는 전략적 안정화에 역행한다. 아울러 러시아의 중요한 외화 획득원인 첨단무기 수출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넷째, 러시아가 미국의 NMD · TMD를 상쇄시키는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군비경쟁에 뛰어 들더라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이는 갈길 바쁜 러시아 경제건설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미국의 NMD · TMD구축이 사실상 범지구적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의 완성을 의미하고 러시아의 안보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이 아닐 수 없기에 크레믈린의 안보전략가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를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단호히 반대하고 저지시키지 않으면 안 될 사활적 안보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NMD · TMD 개발을 무산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안보전략은 필사적이다. 먼저 일차적으로 미국에 대한 강경한 권고와 함께 NMD · TMD 개발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관련국가들의 참여를 방지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도 미국이 강행할 경우, START-Ⅲ, Ⅳ 조약의 포기, 미사일 발사의 상호 통보 중단, 미사일 기지에 대한 사찰 중단, NMD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우주계획 착수 등의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예방

두만강 끝자락을 경계로 약 17㎞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의 존재는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안정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황 여부에 따라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안보를 훼손시키는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동북아 4강의 첨예한 지정학적 이해관계 교차지대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러시아의 안보이익상 개입할 수도, 개입 안 할 수도 없는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현 시점에서 러시아는 가급적 시장개혁의 심화, 경제성장, 정치적 안정 등 내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에 군사력의 밀집과 일촉즉발의 긴장이 상존해 있는 접경지경 한반도는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안보목표와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 번째 목표는 군비경쟁의 도미노 현상을 제공함으로써 극동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과도한 군사력 집중 억제이다.

이를 현재화하기 위한 안보전략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대량 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 저지 △미국주도 TMD개발에의 한국 참여 저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다. 둘째는 남북한의 반러화 방지이다.

러시아는 과거 지대한 국익손실을 초래했던 친서울 일변도노선의 실패를 경험삼아 균형적인 남북한 등거리 우호노선을 통해 러시아에 적대적인 국가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한다. 셋째는 러시아의 국내 개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예방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불안정이 초래하는 안보비용 제거와 미국의 독점적 영향력 행사 견제 측면에서 러시아는 남북한 상호 협력적 대화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을 적극 지지한다.

※이 글은 지난달 29일(목) 열린 우리학교 러시아 연구소 주최 2001년 제 1차 콜로키움 발표 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홍완석
(러시아어과 강사)

초대받지 못한 공연

ㅇ… 문화 시민인 우리 국민들, 몇 만원씩 하는 대극장 공연은 예매로 매진된다.
이에 반해, 소극장에서는 90%이상이 초대권이라는데….
이를 보고 우리 크로니클자 "큰 관객은 초대받았지만, 작은 공연은 초대받지 못했구만…"
〈환동〉

ㅇ… 일본 산케이 신문이 최근 한국의 잇따라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보도일까 궁금한 우리 크로니클자가 살펴보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개혁을 정부사주로, 한겨레를 친북한파로 근거없이 기사화했던 것. 이에 우리 크로니클자 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더니…. 조선일보의 친형제가 이제야 나타난 모양이군"
〈홍〉

크로니클

ㅇ…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2년 연속 85%의 지지율속에 영광스런 '최고의 바보' 자리에 올랐다는데.. 이에 우리 크로니클자 궁금증이 생긴다.
"8년간이나 바보를 모시고 있었던 미국 국민들, 이번에 모시고 있는 그 분에게는 나중에 어떤 영광의 자리를 안겨 줄 것인가?"
〈kang〉

ㅇ… 요즘 1인 시위라는 새로운 시위 방법이 나왔다는데… 한 명이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필요도 없고 방법도 아주 간단해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한다. 앞으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고위층이 있다면 돌아가며 그 사람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보는 게 어떨까? 4300만 국민이 모두 참여한다면 118만년 동안 그 사람을 괴롭혀줄 수 있을 텐데…
〈훈〉

가장 효과적인 시위

제1회
통역 · 번역학 국제학술대회 및 특강

통역번역대학원 BK21 외국어 통역 · 번역특화사업단 주최로 통역번역학계의 해외 유명 석학 네 분과 국내 저명 학자들을 모시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제1회 통역 · 번역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석학들의 특강도 예정되어 있사오니,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제학술대회
주 제: 통역 · 번역학 이론과 한국어 통역 · 번역의 제 문제
일시 및 장소 : 2001년 4월 10일(화), 09:00 - 18:00. 국제관 애경홀
주 최 : 통역번역대학원 BK21 외국어 통역 · 번역특화사업단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특강
일 시 : 2001년 4월 11일(수)
장 소 : 국제관 애경홀(영어과) · 국제관 503호(중국어과) · 대학원 소강당(독일어과)

●국외 발표자 및 주제

발표자	주 제
Mona Baker(UMIST, UK)	Translation Studies and Translator Training in the New Millennium
Stuart Campbell(University of Western Sydney Macarthur,Australia)	Practical Issues in Constructing a Translator Accreditation System
Sylvia Kalina(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Cologne, Germany)	Quality Requirements in Conference Interpreting
Cheng-Shu Yang (Fu jen Catholic Univ.,TAIWAN)	The Teaching Method of Interpretation

●특 강

성 명	주 제
Mona Baker	The Role of the Interpreter in Political Interviews: Analysis and discussion of the strategies employed by the interpreter of Saddam Hussein during a live television interview in 1990, three months prior to the start of the Gulf War
Stuart Campbell	Current Directions in Translation Research
Sylvia Kalina	The kinds and Conditions of Interpretation
Cheng-Shu Yang	The Teaching Method of Interpretation (more details)

문의 전화 - BK21 학술팀 : 교내 4385

통 역 번 역 대 학 원 장

2001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신청

1. 신청자격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으로 2학년(3회등록) 재학생 및 2001-1학기 복학생 (4, 5회 등록)
2. 신청기간 : ▶ 2차(본신청) → 2001. 4. 10(화) ~ 4. 17(화) 까지
※ 1차 신청자는 해당대학 게시판에 명단을 참고 바람
3. 신청방법
가. 2학년(3회 등록 재학생) → 인터넷신청 → 학교홈페이지 → 학사서비스 → 학부서비스 → 학사신청조회 → 교직이수신청
나. 복학생(4, 5회 등록)은 사범대학 교학과 및 용인 교무처에 교직이수 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제출
4. 선발기준
교직과정이수 신청 학생수가 아래 소속학과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선발한다.
가. 1학년(2개 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총 평점평균 기준)
나. ㉮ 항이 동일한 경우 전공성적이 우수한 자

▶ 설치 학과(부) 및 선발인원

대학명	학과 · 전공	선발인원		대학명	학과 · 전공	선발인원	
		서울	용인			서울	용인
	영어학부	15	12	상경	무역학	9	5
서양어	불어	10	8	경상	경영학	8	
서유럽학	독일어	10	8	인문	철학		12
동유럽학	노어	15	15	자연과학	수학		4
	서반아어	30	24		전자물리학		4
동양어	중국어	30	12		화학		4
동양학	일본어	10	14		환경학		15
	아랍어	15	12	정보산업공과	컴퓨터공학		15

5. 선발공고 : 2001년 5월 중(게시판 및 인터넷)
6. 유의사항
가.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학생만이 교원자격증(중등 2급정교사) 취득자격이 부여 됨.
나.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를 조기에 선발하고자 교직과정운영규정을 개정하여 3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에 선발하게 되었으니 교직과정 이수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사 범 대 학 장

비둘기칠판

왕산골

ㅁ알립니다.

러시아 영화제
일시: 4월 3일(화)
장소: 후복관 소극장
상영작: 위선의 태양
(감독: 니키타 미할코프)
시간: 늦은 2시 30분
늦은 6시
〈러시아어과 학생회〉

심리극(PsychDrama)
내용: 내 마음을 상영하고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시다.
지도: 조은정(전문 상담원)
일정: 4월4일~6월30일 매주 수요일 3시 30분 부터 90분간(총8회)
첫모임: 4월 4일
〈용인 학생 생활 상담연구소〉

용인(신·편입생)학생증
2001학년도 용인캠퍼스 신입생과 편입생 학생증을 배부합니다.
발급대상: 2001학년도 신·편입생
발급일: 3월 28일(수)부터
장소: 각 학과 사무실
(계열이나 학부는 해당 교학과)
발급문의: 각 학과 사무실
(계열이나 학부는 해당 교학과)
-학생증 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빠른 시일내 학생과로 제출바랍니다.
〈학생과〉

우혜나 언협장!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총학생회 학자담당 송민섭〉

이문벌

ㅁ알립니다.
잠실(女)고 개강 동문회
일시: 4월 4일(수) 오후 5시 30분
장소: 대학원로비
〈잠실고 · 잠실여고 동문회〉

무역학과 정기 총회
일시: 4월 4일(수) 오후 5시 30분
장소: 3203
〈무역학과 학생회〉

불어과 총 모꼬지
일시: 4월 6, 7일(금,토)
장소: 홍천
〈불어과 학생회〉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1)330-4112, 4580

만나보기 - 무분규 · 노사화합 선언한 후지제록스사 노동조합위원장 이규환(38)씨

"노 · 사 모두 의식의 전환을 통해 동반자적 노사 관계 확립해야"

한국후지제록스사 노조는 지난 달 19일(화) 무분규 · 노사화합을 선언했다. 이 회사는 1974년에 한 · 일 합작으로 설립된 사무자동화기기 제조업체로 1998년에 경영위기를 맞아 일본이 한국측 지분을 인수면서 경영권이 이전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1300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은 고용안정을 보장받았고 이들에게 정리해고는 남의 얘기였다. 지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형태이지만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노조와 사용자측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했다. 이규환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소문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원래 90kg의 거구였으나 바쁜 위원장 활동으로 12kg이 줄었다고 한다.

무분규 선언의 의의와 배경은?

-무분규란 '우리도 태도를 바꿀테니 회사측도 태도를 바꾸라'는 의미이지 회사측에 대한 노조의 항복선언이 아니다. 단체 행동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나가자는 뜻이다.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를 진단해본다면?

군사독재는 잘못된 노사문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 게다가 IMF 경제 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보장받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고용안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해야 기업의 생존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다른 국내 기업의 노사문화와 다른 점은?

-다른 회사에선 노사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 임금 교섭 같은 사안이 없다면 노사가 동석에 앉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다. 자연히 같은 자리에 앉으면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교섭이 오랜 시간을 끌게 되고 양쪽이 지치게 된다. 우리는 노사가 만나는 자리를 수시로 가진다. 예를 들어 매달 실적마감이 되는 시점에서 '노사경영협의회'를 갖는다.

현재의 결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물론 최근 짧은 기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87년 노조설립 이후 14년간 노력의 결실인 것이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땐 상여금 보류, 토요휴무 반납 등을 제안했었다. 양보했던 사안들은 99년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당연히 복원받았다. 올해 공식 임금협상 자리를 갖지 않은 것도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작년의 8% 임금인상과 2% 성과급 인상분 이상의 임금인상률을 보장해 주기로 한 이상 협상자리가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본사 노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곳에선 회사와 노조가 서로 다른 법인으로 존재하며 노조의 활동비도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노사가 분리되고 객관화된 존재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가 경영자와 동등한 위치로 인정받아야 하며 시간 낭비를 줄이고 노조의 기초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외국의 경우를 무조건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노사문화 정립에 힘써야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문화란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노사관계를 자식과 부모의 관계로 비유하지만 외국에서는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인식한다. 물론 외국의 노사관계가 더 바람직해 보일 수 있지만 외국의 노사문화를 우리 나라에 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사관계가 우리 현실에 맞추어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노조가 나가야할 현실적 방향을 여기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 노동운동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조합원들은 노조가 강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안심하고 어떤 가시적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노조에 대한 불신을 표시한다. 나도 노조에 있으면서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해왔다. 하지만 투쟁이 관성화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었다. 난 현 노사관계에 만족한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과거의 투쟁 방법이 필요할 때가 온다면 지체없이 그 방법을 택할 준비가 되어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의식의 전환이다. 회사측의 '구조조정은 인원을 줄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야했고 조합원들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어용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결과를 보라. 임금은 꾸준히 인상됐고 고용안정도 보장받았다. 어용이라면 어떻게 이런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겠는가.

앞으로의 계획은?

-위원장직을 5년째 맡고 있다. 앞으로 남은 1년간의 임기만 끝나면 위원장 자리를 그만둘 것이고 뒤를 이을 사람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언젠가는 민주노총에 가입할 생각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특수성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치부해 버려선 안될 것이다. 국내의 노사문화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지점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찾아내는 것이 현 노 · 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류지훈 기자 kickbutt@orgio.net

보도 - 1인 시위에 대한 단상

1인 시위, 표현의 자유 실현 위한 새로운 수단

흔히 현대 사회를 다원화 · 민주화 사회라고 한다. 그렇다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함을 인정하고 이런 견해가 정당한 방법으로 표출되도록 보장받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매스 미디어 중 메이저 언론사는 소수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하였다.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자 하여도 언론기관이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의견을 공론화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 가운데 대중에게 직접 접근하여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이 여론 형성에 있어 효과적이다. 즉 집회나 시위는 언론에의 접근이 차단된 사람들에겐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유효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의견 표출을 위한 통로가 얼마나 열려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집회와 시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태어난 법이지만 개정을 거듭하며 까다롭고 모호한 조항을 늘렸다. 표현을 '보장'하기 보다는 '규제'하는 측면이 강한 법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수에 의해 침묵당하기를 거부하는 소수는 항상 존재한다. 이런 배경에서 '1인 시위'가 태어난 것이다.

현행 집시법은 '2인 이상이 200m이내에 모여있는 것'을 집회로 규정하고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즉 한 사람이 시위를 하는 것은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고 따라서 신고의 의무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1인 시위'는 거의 '허가'에 가까울 정도로 까다로운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시위 자체가 평화적이면서도 효율적이라는 점 때문에 새로운 시위문화로 떠올랐다. 본지에서는 각각 다른 사안에 대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1인 시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윤재(서양 · 이태리어 97)군을 만나

지난 29일(목) 오후2시 주한미대사관 앞. 한 학생이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을 교육예산으로 전용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목에 걸고 미대사관 정문 앞에 서있었다. 그는 작년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서양어대 학생회장이자 현재 서양어대 집행부로 활동 중인 이윤재 군이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주한 외국대사관 인근 1백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지만 그는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 바로 앞에 서있을 수 있었다.

불과 몇 미터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경들이 눈에 잔뜩 힘을 주고 사방을 주시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시위는 별 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1시간 가량 계속됐다. 미국인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몇몇은 호기심이 생긴 듯 피켓 내용을 훑어보곤 했다.

미 대사관 앞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로 반미를 외친 것은 그가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그렇게 커 보이는 등록금 문제가 미군이 철수한다면 손쉽게 해결된다는 점이 놀랍지 않느냐"며 시위의 의의를 설명했다.

"여론을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1인 시위는 합법적이면서 손쉽게 자신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며 1인 시위의 장점을 강조하지만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적은 무료함이라고 한다. 속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등의 방법을 써보지만 멀리서 지켜봐 주는 친구들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전한다.

민주언론운동실천시민연합(민언련) 부이사장 임상택(50)씨를 만나

지난 달 30일(금) 정오를 약간 넘긴 시각의 조선일보 사옥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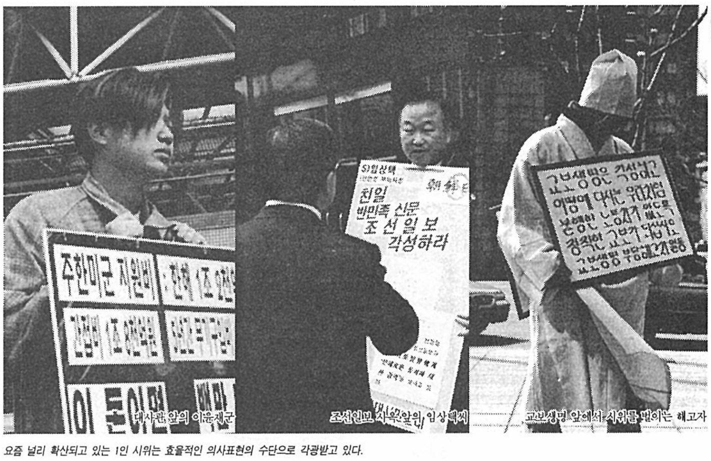
'조선일보는 친일행각에 대해 사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목에 걸고 임 부이사장은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역사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시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시위의 의의가 대중과 함께 한다는 점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1인 시위는 그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번거로운 집회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으며 "1인 시위는 소수 의견의 분출구 역할을 해준다. 요즘은 대중매체도 다양해서 우리의 시위를 보도해 주기 때문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 측의 시위방해는 없었다. 그런데 길을 지나던 조선일보의 애독자 한 명이 임 부이사장에게 자신이 왜 조선일보를 좋은 신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했고 곧 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 논쟁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표정이다. 그는 "방금 그 분의 생각이 대다수 조선일보 독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길 하다보면 언젠가는 바뀌겠죠"라며 "언론개혁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류지훈 기자 kickbutt@orgio.net

류지훈 기자



대사관 앞의 이윤재군 / 조선일보 사옥 앞의 임상택씨 / 교보생명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해고자

요즘 널리 확산되고 있는 1인 시위는 효율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안내

저희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적응을 돕고, 생활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

1. 심리검사
- 성격검사(MMPI, MBTI, 성격진단검사, 자아개념검사 등): 자신의 성격 특성과 유형, 자신의 장단점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는 전공과 직업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 직업흥미검사: 개인이 선호하는 직업적 흥미분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각종 투사 검사(로샤, TAT, 그림검사 등): 자신의 좀 더 깊이 있는 내면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로써 전문가의 판단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상담
- 정서, 성격, 진로, 대인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상담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3. 집단상담
-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①자신을 표현하고, ②자신의 언행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경험하며 ③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4. 유학 및 기타 자료이용 : 유학 취업 정신건강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인성검사 결과지 배부 안내

신입생 여러분!
성격검사 결과지를 받아가세요.
본인이 **직접** 내담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시간: 월-금 10:00~17:00 (학생회관 2층 / T : 02)961-4164(이문), 031)330-4141(용인)
※ 적성검사를 제외한 심리검사는 수시로 받을 수 있으며,
적성검사와 집단 프로그램(집단 상담)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본 연구소의 이용은 무료이며, 이용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성문제 상담실 안내

작년 11월 신설된 학내규정「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01년 3월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내에『성문제 상담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성문제 상담실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들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마련과 처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교제나 성문제로 인한 고민은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각종 비디오 시청」과「알기 쉬운 대학생의 성교육」,「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교육」등의 프로그램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 함양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PC상담실도 개설하여 내방이 어려운 시간에 고민을 e-mail로 적어보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性은 감추어지고 혼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보다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본 연구소를 이용하신 분들의 신상내용 및 상담내용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해드립니다.

※ 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학생회관 2층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내
e-mail: 이문: sccs@hufs.ac.kr
용인: sccy@hufs.ac.kr

4, 5월 집단상담 안내

이문캠퍼스

♦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 내용
자신의 가치관, 성격, 흥미 여가활동 등을 검토,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 결정.
지도: 강이영(상담부장)
일시: 5월 3일(목)부터 5월 24일(목), 매주 목요일 15:00-17:00 총 4회 모임

♦ 4월 적성검사 일정(80분간)
4월 12일 목요일 15:00　4월 30일 월요일 15:00

♦ 새로 보는 성과 사랑
내 용: 성 의식 자기점검, 성 관련 VTR 시청 및 토론.
지 도: 오혜영(성문제 상담원)
일 시: 1차: 5월 2일(수) 15:00-17:00　2차: 5월 29일(화) 15:00-17:00

용인캠퍼스

♦ 심리극(Psychdrama)
내 용: 내 마음을 상연하고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지 도: 조은정(전문상담원)
일 정: 4월 4일-6월 30일, 매주 수 15:30부터 90분간, 총 8회

♦ 자기표현훈련
내 용: 나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지 도: 신경진(상담부장)
일 정: 4월 9일-5월 14일, 매주 월 15:30부터 60분간, 총 5회

♦ 취업면접 실습
지 도: 신경진(상담부장)
1차: 1회 4월 12일(목) 2회 4월 19일(목) 14:30부터 60분간
2차: 1회 5월 9일(수) 2회 4월 16일(수) 15:30부터 60분간
3차: 1회 5월 25일(금) 2회 6월 1일(금) 15:30부터 60분간

♦ 새로 보는 성과 사랑
내 용: 성 의식 자기점검, 성 관련 VTR 시청 및 토론
지 도: 정선영(성문제 상담원)
일 시: 1차: 5월 3일(목) 14:30-16:30
2차: 5월 28일(월) 15:30-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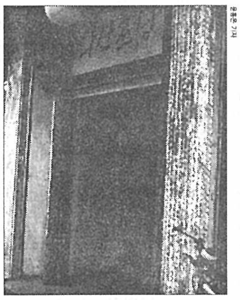
※ 각 프로그램 참여는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용시간: 월-금 10:00~17:00
장 소 : 학생회관 2층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 생 생 활 연 구 소

생활문화

외대주변 문화를 찾아② - 전통차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늘 그자리에…


윤홍은 기자

"2001년 개강, 열심히 하자! 그리고 행복해하자. '다산초당' 처음왔는데 느낌이 좋다. 앞으로 단골되어야지.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흔들리지 말자. '분노'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함께 온 00에게도 행운이 가득하기를…" ('다산초당' 날적이 '다산' 중에서)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유배되었던 만덕산 기슭에 위치했던 다산초당, 그 곳에서 정약용 선생은 우리 차를 즐겨 마시며 차 보급을 위해 애썼다. 엄청난 시간의 간극을 뛰어 넘어 2001년 외대 이문동 한자락의 다산초당, 우리곁에는 그 때의 다산초당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주변에 비해 크거나 화려하지 않은 간판. 하지만 이 곳은 소리 소문없이 어느 새 외대의 명소로서 자리잡았다.

97년 커피에 젖어있던 한 젊은이가 전통문화에 막 눈을 뜨게 되고, 녹차의 맛에 빠졌다.

전통차를 마시려면 인사동에 가야만 했던 그 당시, 이 젊은이는 안타까웠다. 최소한 대학생들만이라도 가까이서 우리 차를 마시고 보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통차를 만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찻집을 시작한다. 조금은 무모하기까지 한 이 젊은이가 지금의 다산초당을 있게 한 장본인 조재완(32)씨다.

단아한 황토색 벽, 수레바퀴나 나무들을 이용한 탁자와 의자, 은은한 조명등…. 다산초당은 나즈막한 목소리를 내는 듯 하다. "다산초당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차, 우리술을 판다는 것이죠"라고 말하는 조씨는 처음에는 직접 경동시장에서 장을 봐 외대생들과 함께 우리 차를 배워가며 만들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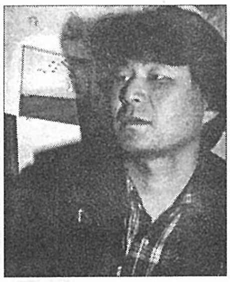
다산초당에서는 현재 녹차를 비롯하여 대추차, 생강차, 오미자차, 계피차, 메실차 등의 전통차(2500~3000원)와 각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는 전통 술을 팔고 있다. "땅끝 해남에서부터 경기도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많은 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제대로 보급 되고 있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전하는 조씨. 남원 춘향주, 구기자술, 더덕술, 머루주, 송화주 등 이 곳에서 파는 각 지방에서 올라 온 전통술은 알코올 이라기보다 오히려 몸에 좋은 약에 더 가깝다.

하지만 이런 술을 파는 조씨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 첫째, 여러 술을 골고루 판다. 물론 입맛대로 잘 나가는 술을 판다면 오히려 재고도 남지 않고 신경 쓸 일도 없어 편하지만 여러지방의 유명한 술들을 소개하고, 인정받고 대중화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둘째, 이 곳에서는 개인이 먹을 수 있는 술의 양을 제한한다. 술과 차를 어울려 먹으며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조씨의 원칙. 그래서 이 곳은 술을 마시러, 차를 마시러 오는 곳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머물게 하는 곳,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곳이 되는 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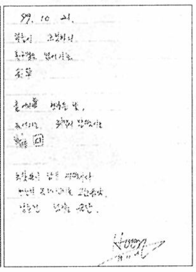
특히 '다산'이라는 날적이는 서로를 대상으로 여러 고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20권이 넘는 날적이는 찻집 한 켠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다. 마치 이 곳을 지나 간 한사람, 한사람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다.

"외대생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다산초당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조씨. 아직까지 이 곳이 없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문화를 아끼는 외대생들의 소중한 마음이었다고 말한다. 현재 중국유학중인 그는 그 곳에서도 늘 다산초당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전한다. 다산초당은 그가 없어도 자신의 뜻을 잘 아는 주위 학생, 친구들의 도움으로 더욱 멋지게 운영될 것이라는 그. "다산초당이 10년, 20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외대인의 명소로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말한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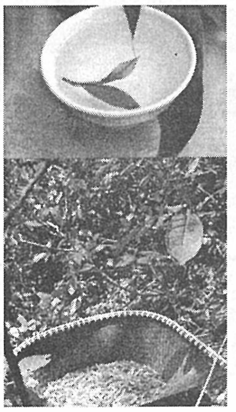

윤홍은 기자

▲ 다산초당 당주 조재완(32)씨



▶ 과방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날적이, 다산초당에 가면 언제나 만날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다산' 날적이는 이곳만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기고글 -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차생활 문화



현대인들은 콜라나 커피에 중독이 되었을 정도로 푹 빠져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 콜라와 커피생활은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얼마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커피먹은 장미 3일만에 시들다"라는 기사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바 있다. 컵에 커피, 콜라, 녹차 등을 부어놓고 장미 한 송이씩 꽂아서 5일간 실험해 보고 쓴 것이다. 녹차는 5일간 활짝 피어 있었지만 콜라는 일부가 까맣게 타고 구멍이 생겼으며, 커피는 3일만에 완전히 쪼그라져 버렸다. 만일 몸에 안 좋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즐기겠다면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싶다면 차생활을 즐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녹차가 좋은 줄은 알면서도 떫다거나 풀냄새가 난다며 싫어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그런가? 아니다. 제대로 우려내지를 못해서 차의 참맛을 느끼질 못할 뿐이다. 진정한 차맛이란 그윽한 차향의 깊이와 아름다움 그리고 더불어 나눠 마시는 철학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려야 할까? 물을 끓인 다음 보통 섭씨 70도 정도로 식혀서 우려 낼 때 제맛이 난다. 다음 우리는 시간을 1~2분 이내에 멈춰야 차성분 중 떫은맛을 내는 폴리페놀이 적게 나오게 된다. 적당히 우려지면 연한 연두색을 띄게 된다. 찻물로 쓸 물은 정수된 물이거나 생수이면 더욱 좋다. 우려내는 방법 외에 우리가 알아야 할 차의 상식은 중국차가 우리 차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차와 중국차는 재배할 때의 기후와 토양이 다른 것은 물론 가공방법도 다르기 때문에(우리차는 솥에 열을 가하면서 비비듯 가공하는 덖음차, 중국차는 쪄서 가공하는 증제차) 우리에게 결코 잘 맞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는 시기에 따른 차의 종류를 보면 우전차(혹은 곡우차·첫물차), 세작(두물차), 중작, 대작 등이 있다. 우전차는 24절기 중 하나인 곡우(4월 20일경) 이전에 딴 여린잎으로 가공한 최상품이고, 세작은 5월 초순경에 따는 상품이다. 보통 대작은 봉지차(티백)를 만들 때 쓴다.

무릎꿇고 엄숙히 마시는 다도(茶道)는 일본에서 발전된 것이다. 조선시대 다성(茶聖)으로 알려진 다산 정약용, 초의선사 등이 무릎 꿇고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양반자세로 편하게 즐겼던 것이다. 굳이 차를 받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차를 연구한 과학자들에 의하면 암세포 억제, 비만, 충치 예방, 고혈압, 당뇨에 좋으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일부가 걱정하는 카페인은 커피와 달리 데아닌이란 성분에 의해 활성화가 억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차는 찬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손발이나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저혈압인 사람도 과다하면 더욱 혈압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차를 마시는 것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살균, 지혈에 쓰며, 생선요리 할 때 비린내를 없애줄 수 있고, 장롱에 넣어두면 곰팡이를 억제하게 된다. 라면을 끓일 때 찻잎을 조금 넣어주면 담백하고 맛이 있으며, 찻잎을 말린 다음 가루로 만들어 수제비, 떡, 밥 등에 넣어 먹으면 맛있음은 물론 좋은 다이어트음식이 될 것이다.

김영조
〈민족문화 운동가〉

생활시평

'1등 뽑기쇼' 그만

따뜻한 봄기운이 반가운 토요일 오후, 오랜만에 인사동거리에 나갔다. 언제 오더라도 볼거리, 들을거리가 많은 인사동, 어김없이 나의 눈과 귀가 분주하다. 인사동거리 한 모퉁이,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 활발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엇인가 쓰고 있다. 궁금한 마음에 다가가보니 '가요 순위프로그램 폐지와 대중음악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요 순위프로그램이라 하면 가요계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가수의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는 순위 프로인데 무슨 잘못을 크게 했나, 왜 이런 질타를 받고 있을까?

곰곰히 얼마전에 본 가요 순위프로그램을 한 번 떠올려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며 한 친구가 웃으며 다가왔다. 그 친구에게 문제의 요지를 들어보니 순위 프로그램이 순위 선정의 투명성이 불분명하고 10대를 위한 가수들이 무대를 독점하고 있으며 댄스와 발라드 등 특정 장르의 편중화, 진정한 대중음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포럼을 시작으로 문화연대, 민예총, 민음협, 민언련 등 시민단체와 딴따라 딴지, 태지매니아, 대중음악판바꾸기위원회 등의 음악팬 모임들이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 친구는 전했다.

그 친구와 함께 가요순위프로그램을 곰곰히 따져보니 문제점이 하나 둘씩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순위 선정방식은 늘 의아했던 부분중에 하나였다. 대부분의 가요순위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순위선정의 기준을 음반판매집계, 방송횟수, ARS 집계로 두고 있다. 지난 서태지 6집음반 경우 130만장의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KBS, SBS 가요순위프로그램의 어느 순위안에도 들지 못했었다. 그 집계방식의 공정성 및 가중치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서로 다른 장르들의 음악적 성격과 특성들을 무시하고 곡들마다 순위를 매겨서 그 자체로 평가하는 데 우선을 두고 있기에 마치 경쟁적인 '1등 뽑기 쇼'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많은 가수들이 음악을 들려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개그맨이나 스포츠맨이 되기도 한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고 돌아서는 길, 좀 더 다양한 음악을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기본목적보다 시청자의 눈을 자극하는 가요순위프로그램, 방송이 수용하지 않는 음악은 이미 설 자리를 잃은 대중음악의 현주소를 떠올리며 씁쓸한 기분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이 바꾸어 주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는 그들에게서 화창한 봄내음을 맡을 수 있었다.

윤홍은 기자

반쪽의 언어를 찾아서

알심있게-〈14〉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야 한다.
영호는 기술을 **알심있게** 배우고 있다.

알심있게→ '실속있고 착실하게' 라는 뜻으로 북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문화 옹달샘

새책

재연/
문학동네/6500원

빼빼(어른들을 위한 동화 14)

집오리는 날지 못한다. 갇혀 편히 지내다보니 나는 법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같은 족속인 청둥오리는 시베리아 호수에서 언 하늘을 날아 우리의 호수를 오가며 제뜻대로 살고 있다. 어린 오리 '빼빼'는 날겠다는 꿈 하나로 무리에서 외롭게 뛰쳐나와 갖은 수행 끝에 마침내 하늘로 솟구쳐 오른다.

오리이면서도 날고자 하는 희망을 가진 못생긴 오리 '빼빼'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게 이 책은 열아홉에 선운사로 출가, 태국·인도 등지를 거쳐 지리산 실상사에서 수행 정진하고 있는 재연 스님이 펴냈다.

집오리처럼 던져주는 먹이만 먹으면서 엉덩이를 뒤뚱거리며 살아갈 것인가, 날아오르기 위해 처연한 방황을 택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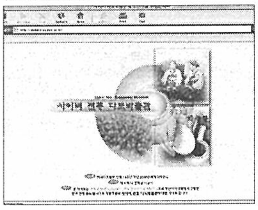
유종호/
민음사/15000원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 현대 문화의 현장을 올곧게 지켜온 문학 평론가 유종호(연세대 석좌교수). 그가 여섯번째 평론집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를 내놓았다. 총 4부로 나누어진 이 책은 1부에서는 시 비평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비롯한 글들을, 2부에서는 문화, 인문학의 위기론과 그와 관련한 반론적 모색을 실었다. 또, 3부에서는 김우창 소묘, 우화의 세계 등에 대한 저자의 소견을 담은 글들을, 4부에서는 현대 한국 문학을 주제로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되어있지 않은 채 추상적 논의를 펴는 경향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왜곡된 우리 문학교육을 날카롭게 꼬집는 저자는 시에 대한 경의와 이에 바탕한 견고한 해석과 이해를 근본적인 처방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나들이



http://dadokorea.pwc.ac.kr

차를 마시는 것과 더불어 건전한 삶의 길을 걷자는 다도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 광속으로 변하는 시대에 지친 현대인들 여유 있는 차 한잔이 그립다.

이럴 때, 한국 다도 협회에서 설립한 '사이버 전통 다도 박물관'에 들러보면 어떨까?

한국 다도협회에서 설립한 이 사이트에서는 다도의 정의에서, 한국 다도의 역사, 한국의 다구, 관련단체까지 다도의 개념적인 정의를 고찰하고 있다.

또, 차의 정의, 유래, 종류와 성분을 차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해 게재해 차와 다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동영상, 사진을 보며 다도와 다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도 이 사이트의 장점이다.

공연

수요영화제 서양어대 시네마떼끄

4월의 테마- Nouvelle Vague(누벨바그)
첫번째 영화- 쥴 앤 짐(Jules et Jim)
〈프랑스/1961/프랑수아 트뤼포 감독〉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이 단순한 기능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만드는 작품의 시나리오나 대사에 책임을 져야하고, 창조적인 개성을 반영해야 하며,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감독이 바로 '작가'이며, 자기 고유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발휘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구현하는 '작가의 영화'가 배출되야 한다는 견해로 시작되었다.

쥴앤짐- 사랑과 미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교차되는 이색적인 3각관계가 흥미롭고 재미있다. 비극적인 소재와는 달리 화면에는 경쾌함과 발랄함이 넘친다. 쥴과 짐 사이에서 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까뜨린은 영화사상 가장 쿨한 여성 캐릭터 중 하나다. 까뜨린에 대한 두 남자의 상반된 사랑의 방정식과 심리묘사가 돋보인다. 사랑의 복잡미묘한 감정을 절감케 해주는 사실적이면서도 시적인 대사, 나레이션 그리고 독특한 음악의 조화를 눈여겨 볼 만하다. 프랑스영화의 최상의 것들(도시성, 위트, 접촉의 상쾌함, 지적인 자질들, 감정의 우아함)을 구체화한 트뤼포 감독의 모든 매력이 압축된, 40년전 영화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언제까지나 호응받을 만한 걸작이다.

때: 4월 4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곳: 대학원 소극장 6104

밀착취재 - 극예술 연구회 '연결'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무대 위 그들은 행복하다

"야! 정신차리고 긴장하지 못 해!"
"거기서 웃는 거 아니잖아!"

연출자의 매서운 꾸짖음이 무대 곳곳을 꿰뚫는다. 이내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지적한 부분들을 다시 고쳐나가는 배우들·관객이 없는 연습이라도 그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은 극예술 연구회 '연결'의 마지막 리허설중.

스팀도 들어오지 않는 추운 공연장이지만 서로의 연극에 대한, 무대에 대한 열정들이 온기를 만들어낸다. 처음 강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코끝에 스친 냉기가 무대 위 리허설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것 만으로도 사라지는 것 같다. "스팀이 뭐예요? 이 공연장 빌리는 데도 정말 어려웠어요"라고 공연환경의 열악함을 토로하는 연출자 심은희(서유럽· 불어 99)양. 스팀도 들어오지 않는 이 곳에서 지난 2월부터 연습을 했다고 한다.

연이은 이틀공연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어제 공연이 끝나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텐데 연결인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11시에 모였다. 어제 공연평가를 간단히 하고 발성과 몸풀기 연습을 시작한다. 아무래도 마지막 공연이라는 이름이 그들의 손과 발을 더욱 열심히, 진지하게 하는가 보다. 리허설은 상당히 오래 진행되었다. 단지 대사를 외우고 무대 위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리허설이라도 배우가 올라가는 무대는 항상 새롭다고 한다. "배우는 자신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알아요.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 성격과 캐릭터의 성격이 맞부딪치는 장면입니다. 그건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죠"라고 연출자는 말한다. 무대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장소인 것이다. 그런 무대위는 정말 반질반질했다. 보통 배우들도 맨발로 연기를 하거나 가벼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무대 닦는 것은 새내기들의 몫이죠. 보통 신발을 신는 역이 아니면 맨발로 무대에 오른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무대를 아끼는 법,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대에서 누워있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혼이 난다고 한다. 새로 들어온 6명의 새내기들에게 무대를 사랑하는 선배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무대위는 미끄러질 정도로 말끔했다.

언제 혼이 났었는지 리허설이 끝나고 나니 다들 잊었나보다. 좀 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아닌 화기애애함이 분장실에 흐른다. 무대 뒤 한켠에 자리잡고 있는 분장실. 마음까지 분장해야한다는 연출자의 말에 다들 숙연해진다. "아까 리허설 때처럼 지적받고 나고 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라고 묻자 바바라역의 정정윤(동화·아랍어 00)양은 "오히려 죄송하죠.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게 전한다. "하지만 가끔 앤 입이 나오기도 하죠"라고 누군가 옆에서 덧붙인다.

"코 좀 높여주세요. 턱 좀 깎아주세요" 분장을 맡은 이규숙(경상·무역 99)양의 손은 배우들의 얄미운 요청에 분주하다. 제인역을 맡은 박혜영(동유럽·체코어 00)양은 분장말고 다른 것을 꾸미고 있는가보다. 옆에 가 살짝 보니 가슴을 크게 만들기 위해 양말과 휴지를 넣고 있는 것이다. 46세 왕년의 스타였던 몸매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자기자신이 아닌 영락없는 바바라, 엘레나, 블렌취, 제인의 모습이다.

엘레나 역을 맡은 이혜진(경상·경제 00)양은 활발한 경상도 말씨를 쓰는 친구였지만 연극을 통해 자기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얌전한 부분을 캐내었다. 걸어다니면서도 '엘레나는 어떻게 걸었을까?' '이럴때 엘레나는 어떻게 했을까?' 스스로 엘레나에게 말을 걸고 대답을 듣고 하는 작업을 반복했다고 한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분주해진다. 소품을 하나하나 챙기고, 확인하고 서로의 연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자며 조금씩 수정도 하고… "공연하면서 실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관객의 반응을 직접 무대에서 느끼며 이땐 이렇게 해야하는구나가 확실히 떠오른다"고 박혜영(제인역)양은 말한다. 망치로 바바라를 때려죽이는 장면이 오히려 웃음을 불러와 목을 졸라 죽이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무대 말고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조명실과 음향실. '반짝이는 침묵'이 흐르는 그곳. 빛도 말소리도 새어나가면 안되기에 초와 손전등을 켜놓은 그곳은 화려한 무대에 비해 작고 초라한 공간이었다. 보이지 않는 무대뒤에서 배우들을 빛나게 해주는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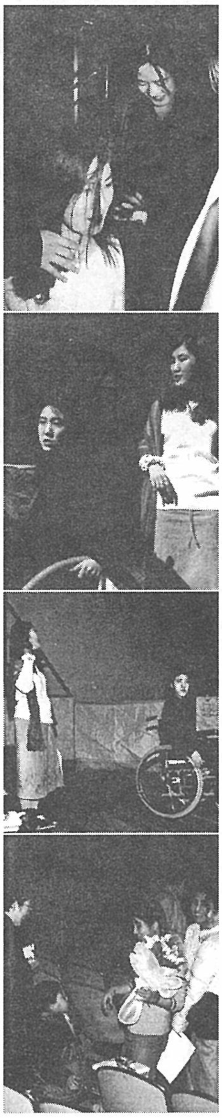
마지막이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서 있는 이 무대가 나의 전부이다.

막은 오르고 그들은 더 이상 연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연극이 아닌 실제 장면으로 착각하게 된다. 헬리 펠러의 작품인 "Whatever Happened to Baby Jane?"은 두 자매가 배우로서 더 사랑받기 위해 갈등하는 과정을 그렸다.

한시간 반. 블렌취, 엘레나, 바바라, 제인을 만난 관객들 또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 곳에 있었다. 박수가 나온다. 여기저기서 잘했다는 칭찬, 싸인해 달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공연이 끝난 것이 역시 아쉬운 듯 무대위에서 사진을 찍기도 한다. 서로가 자랑스러운 듯, 토닥거려주는 모습들… 웃음소리들이 속 시원하다. 블렌취역을 맡았던 김인혜(서유럽·영어 99)양은 연극팜플렛 소감란에 이렇게 적었다. "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길 원했다. 무엇이 남아있길 바라지 않았다"

무대의 막이 내려지고 사람들이 떠난 관람석을 바라보는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에너지가 소진되어 조금은 허전한 마음이 들까? 아니면 에너지를 발산한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채워나갈 줄 아는 용기를 가진 그들. 무대의 막은 내렸지만 그들은 그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며 자신을 차곡차곡 쌓아갈 것이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윤홍은 기자

알아보기 - 문화관광부의 사랑티켓제도

혹시 사랑티켓을 아시나요?

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실의 제약, 경제적 부담은 이 의미를 퇴색시킨다. 보통 연극은 12000원에서 20000원, 뮤지컬은 3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일반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기까지 하다.

사랑티켓제도는 1991년 '연극 영화의 해'를 맞아 문화부에서 연극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 올해로 10년째가 된다. 사랑티켓제도는 공연티켓 가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줌으로써 보다 많은 관객을 공연장으로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서울전역 '사랑티켓 행사'에 참가한 순수공연예술(연극, 국악, 무용, 오페라, 창극, 연주회, 뮤지컬 등)을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관객이 7000원의 사랑티켓을 구입하면, 정부 보조금 5000원으로 12000원짜리 공연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연관람표가 사랑티켓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은 관객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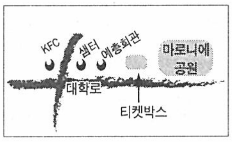
이는 공연단체에 일정 수준의 수입을 확보하고, 관객에게도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줌으로써 더욱 연극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듯 민간 극단 지원과 연극 관객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랑티켓은 대학로에 위치한(혜화역 2번 출구) 티켓박스에서 오후 2시에서 7시 사이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접 구입해야 하며, 1인 4매까지 살 수 있다. 사랑티켓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은 매월 발간하는 '사랑티켓신문'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www.kcaf.or.kr)를 통해 안내되고 있으며 사랑티켓으로 공연을 관람한 관객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사랑티켓은 잠재관객 발굴에 기여함으로써 매년 2~3만 명의 유료 관객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평일 하루 2백장, 주말에는 하루 5백장이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어, 1~2시간이 지나면 구입이 어려울 정도이다.

연극을 관람할 때면, 항상 사랑티켓을 이용한다는 최미아(27)양. "연극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게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대학로에 와서 사야하고 전화예매가 안 되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말한다.

아직 국민의 76%가 사랑티켓이라는 제도를 모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연극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놓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풍성한 볼 거리가 있는 대학로, 오늘 대학로에 가서 사랑티켓으로 연극을 한 편 보는 것은 어떨까?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만나보기 - 연극 '금이야 사랑해'의 주연배우와 관객

윤홍은 기자

'금이야 사랑해' 주연을 맡은 민윤재(28)씨

윤홍은 기자

'금이야 사랑해'를 관람한 모녀

"저는 정서가 연극이랑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그녀는 대학에서 무대미술을 전공했다고 한다. 우연히 연극무대에서 본 그녀는 연극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지금까지 연극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배우 생활 5년째지만 아직도 연극배우가 된 자신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영화에도 몇 번 출연했던 경험이 있는 그녀는 영화보다도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연극에 더욱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연극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한 부모님을 볼 때마다 힘들다는 그녀는 "자신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관객들을 보면 힘이 난다"고 한다. 그녀는 연극배우는 흔히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감기도 마음대로 걸리면 안 되는 제약이 많은 직업이라고 한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완전히 탈진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하는 그녀에게서 프로 연극배우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기숙사가 대학로 근처에 있어 엄마가 서울에 오실 때마다, 연극을 함께 봐요"라고 말하는 임방울(22)양과 그녀의 어머니 정명희(49)씨.

이 모녀는 코믹물보다는 삶이 녹아난 현실적인 연극을 즐겨 본다고 한다. "한번도 연극을 보고,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는 임양은 '뮤지컬 블루 사이공', 어머니 정명희씨는 '리어왕'을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 꼽는다.

또한, 오늘 본 '금이야 사랑해'도 기대 이상이었다고 전하는 임양. 그녀는 "연극을 보면 언제나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이번 공연으로 '윤금이'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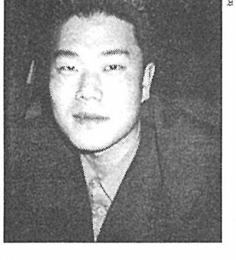
임양은 "부산에서는 자주 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서울 대학로에서는 언제나 공연을 볼 수 있어 좋다"고 전한다.

혼신을 다하는 배우들의 모습에서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계획하게 된다는 모녀. 손을 꼭 잡은채 연극을 관람하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만나보기- '유료관객 활성화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연사모 회장 김승영(26)씨

소극장 공연 100% 유료관객화 될때까지



김현지 기자

연사모는 어떤 모임인가?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인 연사모는 1997년 10월 31일에 만들어졌다.

초등학생부터 50대 중반의 아저씨까지 매우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으며, 어떠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거나,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회원제단체가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별다른 가입 조건 없이 누구나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한 달에 한 번의 정기 모임을 가지며 소극장 연극 홍보, 연극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주요 활동이다.

연극계의 '검은 손'이라 불리는 연사모는 작년 극단들이 합동으로 준비하여, 진행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연극계에 크고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사모에서 하고 있는 '유료관객 활성화 서명운동'은 무엇이며, 이런 운동을 하게 된 계기?

유료관객 활성화 서명운동은 말 그대로 소극장 공연이 100% 유료 관객화가 될 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서명운동이다. 100% 유료 관객으로 이루어진 영화와 비교해 보면, 이 운동은 매우 이상스럽다. 하지만 평균 30~40명의 관객 중 2명 정도만이 유료 관객인 것이 연극계의 현실이다. 또한 소극장 공연은 당연히 무료로 보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런 상황은 더욱더 극단측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공연을 준비하는 것조차 어렵게 한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극단측은 또 다시 초대권을 배포한다. 이런 연극계의 고질적인 악순환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연극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낮은 단계인 서명운동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아직은 연극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대권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은가?

홍보 등의 이유로 초청권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초대권과 초청권은 차이가 있다. 우선 초청권은 공연에 꼭 초대해야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초대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홍보를 빌미로 요구하는)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돈이 없는 소극단은 달리 홍보할 방법이 없어 이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의 반복이 더욱더 소극장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무료로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사람들이 조금 당황한 기색이다. 하지만, 영화는 돈을 내고 보면서, 연극은 돈을 내는 것이 이상스런 지금의 현실, 90%가 넘는 무료 관객자들의 상황을 알려주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인다. 연극계에서는 관객입장에서 유료 관객을 활성화자니 더욱 반가워한다. 유료관객의 활성화는 곧 연극 작품의 질을 향상시켜 다시 관객에게 돌아온다.

관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우선, 연극을 산업이 아니라 예술로서 받아줬으면 한다. 연극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 볼 때, 공연문화는 분명히 진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연극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귀울여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연극활성화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유료관객 활성화 서명운동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

(연사모 홈페이지www.drama.co.kr)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미리보기 - 제 1회 오름제(놀·자·판)

대학로에서 우리 한판 놀아볼까?

대학연극패들이 뭉쳤다. 아마추어이지만 그 누구보다 연극을 사랑하는 이들이 드디어 일을 냈다. 오는 4월 5일(목)부터 삼일간 '제 1회 오름제(놀·자·판)'가 '한국대학연극패연합 연극 오름(이하 연극오름)'의 준비로 대학로 소나무 길과 나지트(NAZIT)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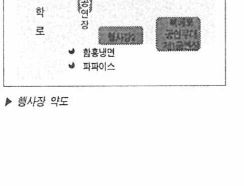
5일(목) 늦은 5시 개막제를 시작으로 크게 길놀이, 노는판, 연극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학 노래패, 밴드, 풍물패의 공연과 덕성여대 운현극회, 서강대학교 공연예술회 몸짓 등의 6개 작품의 연극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우리학교에서는 연결을 비롯 손말사랑회, 슬랩업, 아웃사이더가 공연팀으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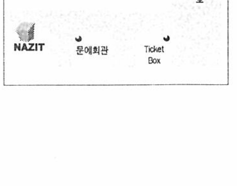
대학연극패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연극의 질적 향상과 이를 통한 연극인구의 저변화를 목표로 지난 11월에 출범한 연극오름은 현재 외대(용인)를 비롯 경희대, 고려대, 인천대, 아주대 등 총 12개 학교가 활동하고 있다. "많은 대학연극패들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의욕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공연 내용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리원의 수도 현저히 줄어들다 보니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대학연극패의 현주소를 전하는 연극오름의 회장 김병석(고려대)군은 이런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합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위로 향하다의 '오름'과 옳다의 '오름'의 두 가지 뜻을 내포한다는 것처럼 연극오름은 옳은 연극을 추구하고, 보다 높은 곳을 향한 연극에의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 젊은 대학 연극인들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관객과 공연자가 하나로 어우러져 즐겨보자는 '놀자'의 뜻과 마당이라는 뜻의 '판'이 합쳐진 '제 1회 오름제(놀·자·판)'. 대학연극패의 새로운 출발이 희망차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 행사장 약도

공연안내

회망의 노래
꽃다지 봄 콘서트

언제나 노동자와 민주의 투쟁에
연대하며 우리 삶을 살찌울
건강한 노동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꽃다지.
모든 계급과 계층, 정파를 초월해
가장 인기 있는 곡들을 생산해온
노동가요의 메카라고 평가받는 그들이
2001년을 맞아 발표하는 야심찬 싱글 음반 '반격' 발매 기념 콘서트를 연다.
휴머니즘을 바탕에 둔 비판 정신을 바탕으로한 이번 공연에서 꽃다지는
'바위처럼'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의 기존의 노래와 '반격', '주문' 등의 신곡을 통해, 음악이 주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보여 줄 것이다.

때: 4월 13일(금) 오후 8시
4월 14일(토) 오후 4시/7시
곳: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입장권: 현매 18000원/ 예매 16000원
단체할인(10인이상)15000원

영화평- 화양연화(花樣年華)

왕가위, 시간에 대한 또다른 해석

'그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화의 후반부 인서트 컷된 화면에 흐르는 구절이다. '화양연화'는 '그 시절'의 이야기이며 되돌릴 수 없는 아련한 운명과 정서의 빛 바랜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사진첩과 같은 영화이다. 왕가위는 '해피 투게더'에서 가장 모던한 '동성애' 소재에 홍콩 반환이라는 동시대의 지정학적 의미를 살며시 포개놓더니, 홍콩반환 이후 이 영화에선 1962년 홍콩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에겐 여기 오늘의 홍콩엔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는 의미인가? 아니라면 영화 제목의 의미처럼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 홍콩으로 돌아가고픈 퇴행심리가 작용한 것일까? 그렇다. 분명 영화엔 노스탈지아에 대한 감독의 강한 애착이 엿보인다. 그러나 영화에서 '그 시절'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호시절에 대한 '그리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어떤 '남' 그리고 '여'의 숙명적인 이별이 새겨놓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상처와 허무감 때문이리라.

붉은 색 바탕에 흰 글씨로 크레딧이 올라가며 영화는 시작한다. 시작부터 이것이 자신의 영화임을 친절하게 밝히며 그만의 미학적 자취를 과시한다. 그러나 크레딧 부분의 강렬함은 '1962년 홍콩'이라는 자막과 함께 화면 속에서 사그라진다.

영화는 이제부터 느리다. '중경삼림'이나 '해피 투게더'에서 시간에 대한 유연하고 속도감 있는 사고를 화려한 기술적 성취 속에서 재현한 왕가위는 여기서 초심의 미학으로 돌아가려는 듯 카메라의 움직임은 거의 없고 인물에 가까이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마치 카메라는 주인공 리첸(장만옥 분)과 차우(양조위 분)의 얼굴, 손짓, 발걸음이 드러내는 그 미묘한 감정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이것은 표현될 수 없는 억제된 사랑(60년대에 게다가 불륜이다)의 떨림을 담는 매우 효과적인 영화적 형식이 된다. 그들의 사랑의 모습만큼이나 영화적 테크닉은 절제되어 있으며 그 절제의 미학은 관객 스스로 차우와 리첸의 말없는 대화와 억압된 행위 밑에 흐르는 충동과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들을 둘러싼 공간과 시간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영화에서 연기하는 것은 차우와 리첸만이 아니다. '중경삼림'에서 경찰의 방안에 있었던 눈물을 흘리는 수건이나 인형처럼, '화양연화'의 공간에 등장하는 소품은 모두 어떤 감정의 산물처럼 느껴진다. 국수를 담는 주전자의 꼭지에서 흘러나오는 슬픈 수증기, 형광등 밑에서 넘실대는 고독한 담배연기, 그들의 퇴근길에 내리던 외로움을 부추기는 비, 그 빗줄기 속 거리에서 그림자 같은 사랑을 비추는 가로등, 호텔 복도에서 바람에 살랑거리는 에로틱한 붉은 커튼. 사실 '화양연화'의 실제 주인공은 이러한 순간에 포착된 '사물의 기억'일지도 모른다. 왕가위 감독은 리첸과 차우의 미묘한 감정선의 변화를 그들의 대화나 급변된 상황의 전개로 풀어내지 않는다.

차우를 만나기에 앞서 오물오물거리며 떨고 있는 리첸의 손과 거리 위의 고인 물속에서 동근원을 그리고 있는 물결을 슬로우 모션으로 포착한다. 차우와 리첸의 불가역한 만남과 실연의 고통은 이렇게 물질이 기억하고 있는 순간의 형상화로 시적인 상태에 이른다.

왕가위 감독은 '시간'을 다루는 영상예술가이다. '아비정전'에서 모든 인물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아비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찾아 떠나고 수리진은 아비와 함께 한 1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독백한다. '중경삼림'에서 버림받은 양조위의 시간은 정지해 있는 듯 하고(패스트푸드 앞에 사람들은 패스트 모션으로 움직이지만 양조위만은 슬로우 모션이다) '해피 투게더'의 시계는 새로운 출발을 향해 다시 "0"으로 수렴하려는 듯 그 지리한 라틴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휘와 보영의 시기, 질투, 사랑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이렇듯 왕가위 영화에서의 시간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인물의 마음 속 풍경에서 흘러가는 주관화된 '심리의 시간'이다.

'화양연화'에서도 차우와 리첸의 일상을 지배하는 시간은 이러한 '심리적 시간'의 연장 속에 있다. 마치 영화에서 두 연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배경을 흐릿하게 지워버리듯, 리첸의 사무실 위에 있는 시계가 클로즈업된 상태에서 들리는 것은 남몰래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리첸과 차우의 가라앉은 목소리뿐이다. 그들의 이별을 예고하는 미장센이며 동시에 1962년이라는 시대적 맥락이 지워진 개인화된 시간과 '가장 아름다운 한 때'를 봉인한 얼어붙은 시간의 의미를 시계에 투사하고 있는 장면처럼 느껴진다. 왕가위의 전작들은 현대극이든 시대극이든 언제나 홍콩의 '현재'에 그의 언급이 무의식적으로 깔려있었다.

하지만 '화양연화'에는 이러한 현재적 의미의 징후들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과거' 그 기억에 매달려 있는 듯 영화는 '그 시절'의 흔해빠진 불륜의 이야기를 영원의 순간처럼 담고 있을 뿐이다.

홍콩 반환 이후 왕가위는 홍콩의 '오늘'에 대한 전망을 폐기 처분한 것일까? 아니라면 그 전망을 불륜마저도 아름다웠던 '그 시절'에서 찾고자 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은가. 왕가위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

그는 버릴 것을 버렸다. 즉 '가장 아름다운 한 때'의 의미를 개인의 영역으로만 좁히고 그 감정의 순간을 탐미적으로 추구한 작품이 '화양연화'라 할 수 있다.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거기에 1962년에서 1963년으로 시간과 공간이 변하였지만 이 두 연인의 마음은 여전히 1962년 홍콩에 있다. 그것은 '사라져버릴 기억'이 아니었는지 리첸은 차우를 찾아 싱가포르에 간다. 허나 수화기 속 리첸의 목소리를 가슴에만 묻고 그녀는 떠난다.

1966년 홍콩. 예전에 살았던 '가장 아름다웠던 한 때'를 간직한 셋방에 차우와 리첸은 한 번씩 들르지만 그들의 만남은 결국 어긋난다. 운명은 가혹하고 그러기에 성스러운 것인가? 차우는 결국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날아간다. 시간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 차우는 이제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사원의 벽에 영원히 묻어버린다.

그렇다. 차우가 묻어버린 '그 시절'은 그녀 혹은 그를 잊어야만 했던 고통의 시기였고 이제는 망각의 구멍에 영원히 봉인해야 할 기억만이 존재했던 '상실의 시대'였던 것이다. 그리고 앙코르와트 사원의 봉인된 벽처럼 왕가위는 그 상실의 시대를 영화의 시간으로 영원히 봉인해버린다. 영화 '화양연화'는 봉인된 시간의 이미지들이 애절한 라틴음악에 몸을 싣고 추는 느리고 슬픈 탱고. 바로 그것이다!

양정호
(서양·영어 98, 휴학)

사진수필

본관신축의 시작을 알리는 모래가
막 퍼 올려졌습니다. 바로 그 옆을 친구들과
돌아 나와 미네르바로 향합니다.
손에는 도시락이 가득 들려있죠.
'마지막'이라는 친구 말에
두말없이 사들고 온 것이지만…
때아닌 추위로 밥이 금새 식어서일까요?
목이 계속 막혀 옵니다.

사진부

수필

못을 뽑는다. 생명을 발현한다.

봄이다!

저 깊은 곳으로부터 외침이 솟구친다. 봄이다. 괜시리 들뜨고, 시선은 먼 하늘을 우러른다. 움츠렸던 신경들이 풀리면서 한판 휘휘휘 돌고 싶어진다. 이때쯤이면 쓸쓸히 거리를 지키던 가로수들도 슬그머니 움트기 시작한다. 겨우내 죽은 듯 우두커니 서 있던 가로수들은, 일년 내내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준다. 온통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봉쇄당한 땅에서 그래도 싹 틔우고, 잎 내밀고, 꽃 피우며, 나중에는 열매까지 매다는 것을 보면 그 나무들이 경외스럽기까지 하다.

나는 사람을 보듯이 종종 나무들을 바라본다. 홍릉을 지나는 길에 본 나무들은 얼마나 속터지는 일이 많았는지 가슴께에 큰 혹들을 달고 있다. 해남 녹우당에 있는 한 은행나무는 자신의 아랫줄기를 갈라 그 안에 어린 나무를 키우고 있다. 강촌의 삼악산을 춘천쪽에서 오르다보면 바위에 질기게 서 있는 소나무는 변함 없이 씩씩하다. 그리고 동리 입구나 중간녘에 우람히 서 있는 무수한 느티나무들이 주는 안온함은 시대의 빠른 속도를 넘어 의연하다.

이같은 나무들이 주는 위안과 용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 그저 받기만 한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낀다. 그러면서 낮게 되뇌인다.

그래 굳은 푸르름으로, 할 수 있다면 향기로, 더욱 할 수 있다면 열매가 되어 생명들과 더불자. 그래 언제든 이같은 뜻을 되새기며, 아무리 극악한 상황이라도 최소한 비굴하지 말자.

언제나처럼 나무들을 보고 가다가 학교 정문에서 본관에 이르는 길에 있는 은행나무들을 보았다. 이제 갓 푸른 기운이 얼비치기 시작한 나무들을 어루만지며 다독이다가 얼핏 가슴 찌릿한 충격을 받았다. 몇몇 은행나무들에 큼직한 못들이 박혀 있는 것이었다. 아마 플랭카드 같은 것을 견고하게 매달려는 과정에서 나무에 못질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많이 속상했다. 내가 나무에 유난한 집착을 지닌 사람이라서는 아닐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에 큰 못이 박혀있는 것을 본다면 순간 당혹스러워 할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에 상처를 주었다는 의식에서 일 것이다.

어느 대학에 갔을 때가 생각났다. 그 대학에서는 누가 시작한 것인지 대학을 가로지르는 중앙통로에 있는 나무들에 고무밴드를 둘러놓았고, 어떤 것을 부착하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작은 마음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또한 부럽기까지 했다.

사이버가 매개하는 무미건조함과 속도(물론 내가 이것들의 유용성과 시대의 불가피성까지 모르는 것은 아니다)가 무시하는 무수한 미세 생명들과 상황들,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물상화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보다 사람이 살 만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부단하게 지속하여야 한다는 당위이다. 이같은 점들에 공감한다면 그 바탕에는 모든 생명들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싸움은 똑같은 유일생명체로서 대등한 관계로 자유롭게 자신들을 발현해가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봄을 맞는 스스로의 흥겨움에 취해 지나칠 뻔한 상처들에 대해 무심히 바라본 나무들을 통해 되새길 수 있었다. 당장 손으로 뽑히는 몇 개의 못을 뽑으면서 그 녀석들의 신음이 들리는 듯 했다.

한편으로 나는 내가 계획적이었거나 무의식중에 남 들에게 박았을 못을 생각했다. 그리고 또한 내게 박혀 있는 못들을 바라보면서 새삼 몸을 떨었다. 그 밤 내내 나는 참담하게 아팠고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몇 개의 못은 뽑아내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고, 어떤 이에게는 메일을 보냈다.

날이 밝으면서 나는 망치를 들고 아침 일찍 정문에서 본관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은행나무들에 박혀 있는 못을 빼러 나갔다.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 더 이상 이 생명들에 못질을 하지 않았으면 빌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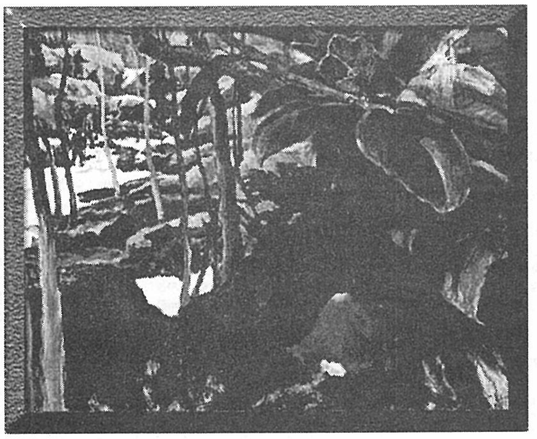
신주철
(외국어연수원 한국어과 강사)

바로잡습니다

지난 781호에서 (서유럽·러시아어)→(동유럽·러시아어)로 바로잡습니다.

외대학보

한라산 동백꽃 다시 피다



동백꽃 지다/ 강요배 화백
130.6*162.1
캔버스, 아크릴릭
1991

'동백꽃 지다'
통꽃으로 처참히 떨어지는 한라산 동백꽃들….
4·3의 와중에 스러져간 수많은 민중들의 넋입니다.
지난 해 1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꽃은 영원히 지는 것이 아니라 진자리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처참히 떨어진 한라산 동백꽃을
현재의 시기로 끌어올려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1948년 4월 3일. 고단한 섬 제주.
그 속에서 처참히 떨어졌던 동백꽃들을 기립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